

이재명 지사, "불법시설 철거서 실질적 주민 이익"



가평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응 현장방문·간담회 개최 이재명,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주는 정책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며 "불법시설물 철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정은식 가일2리 이장을 비롯한 상인·주민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큰 적폐만 얘기하지만 생활 속의 작은 문제들도 지나치게 많다보면 사회를 망가뜨린다"며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하천 계곡 인근 주민들이 합리적인 하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자 이 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전 간담회와는 사뭇 달리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하천복원사업 및 후속 안전조치 관련 예산지원, 하천구역 편면적 최소화, 하천의 체계적 관리, 생활형 SOC사업을 통한 친수하천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에 대해 건의했다.

동체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를 태면 계곡이나 마을 단위의 조합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참여 청정계곡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획안을 만들어 달라"며 "공동체를 통해 골목상권을 진흥하듯 계곡도 친환경적인 생태 터전이 되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철도파업 철회... "임금 1.8% 인상·인력충원 협의체 구성"

코레일노사가 이틀간의 밤샘 협상 끝에 철도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서민들의 고충도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특히 노사는 정부의 공기업 가이드라인인 임금 1.8% 인상을 수용하고 대신 이날 중 인력충원 협의체를 구성에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코레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전 7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현장에 복귀하게

되며 열차 등은 정상운행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시를 준비하던 수험생과 출퇴근 서민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든다. 다만 코레일 측은 열차 운행률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약 2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철도운영 정상화엔 2일 정도 소요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정부 안팎에서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열리는 25일 오전 파업이 철회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부산 아세안 회의장에서 대규모 철도노조의 집회가 예고돼 있었기 때문이다.

알림 문화매일 전국주재기자 모집

전국종합일간지 문화매일에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본지는 서울시 금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세 확장으로 인하여 함께 일할 참신한 인재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

- 1. 전국 광고국 임원 특별대우
2. 채용인원: 전국 주재기자 및 본부장급 (전국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3. 응시자격: 학력 성별 나이 무관 (경력자 우대)
4. 접수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5. 접수기간: 채용 완료시 까지
6. 채용방법: 직접 면접 (통신 면접도 가능)
7. 접 수 처: 총무국 (02)2612-2959 fax (02)2060-4147
8. 전화문의: 대표전화.1899-9659 H.P. 010-6440-4147

안산시, 2021년까지 시화호 뱃길 복원한다

시화호,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탈바꿈 인천천 하구-반달섬-대부도 총 21km

경기 안산시는 시화호방조제 건립으로 끊겼던 시화호 뱃길을 26년 만에 복원하는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안산천 하구, 반달섬, 대부도 옛 방아머리 선착장에 선착장 3개소와 부대시설 등을 조성, 관광객 바다체험을 위한 40인용 선박을 운항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사업에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모두 70억 원이 투입되며, 이날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는 6개월간의 시범운항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에 나선다.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사리포구가 있던 상록구 사동 등 수공원 인근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해 반달섬을 거쳐 시화호 방조제 안

쪽 옛 방아머리선착장까지 이어지는 총 21km구간에 옛 뱃길 항로가 복원된다.

시는 옛 뱃길 복원을 통한 새로운 해양레저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2023년 완공 예정인 방아머리 마리나항과 함께 시화호 일대 관광 활성화 기여와 시의 해양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상록구 해양동 푸르지오7차 아파트 인근 수변공원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 지역 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옛 시화호 뱃길 조성을 환영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을 통해 인근 시흥과 화성보다 우리 시가 해양레저관광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뱃길 조성으로 안산시 관광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시가 서해안의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화성, 수산식품산업 거점 조성

경기 화성시 서신면 에코팜랜드 화옹간척지 일대에 관내 생산 김을 활용해 6차 산업을 이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들어선다.

25일 화옹간척지 4-12공구에서 박덕순 부시장을 비롯해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서정원·송옥주 국회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거점단지 착공식이 개최됐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93억 원, 시비 42억 원, 경기남부수산협동조합 15억 원 등 총 150억 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21,767㎡, 연면적 5,607.94㎡ 2개 동 규모로 조미김 가공시설 및 연구, 홍보관과 종합 체험장 등을 갖춘 예정이다.

경북을 이어가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A promotional banner for Gyeongbuk featuring various scenic spots and cultural elements. Text includes '경북에서 당신이 이어나갈 여덟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d '경북에서 당신만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세요'.

경상남도, 소프트웨어 혁신네트워크 구축에 박차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사업, 경남지역과 기술교류회 개최 글로벌 정보통신시장 개척단, 대만과 말레이시아 수출계약 성과



경남도는 사전시 아르페리조트에서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광역 연계 기술교류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남 및 전남지역의 대중소 기업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경남·전남 지역의 소프트웨어(SW)융합클러스터 생태계 활성화와 확산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기술세미나와 지역 대·중견기업인 두산, 에스티엑스(STX)엔진, 에

스티엑스(STX)조선해양과 지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기업 홍보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게 유용한 소프트웨어 융합계획 설계(디자인씽킹) 지원교육,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절차안내, 지역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전략 소개 등 3개의 기술세미나와 수요기업과 지역정보통신기술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며 협업·상생할 수 있는 정보세미나 등이다.

참가한 정보통신기술기업 관계자

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기업은 수도권에서 집중되어 있고, 지역수요처인 대·중견기업마저 지역 강정보통신기술기업을 몰라 수도권 업체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행사처럼 경남과 전남기업의 광역 기술 교류 뿐만 아니라 수요처와의 정보교류 및 기업 홍보까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국내 기술 및 비즈니스 정보 교류 뿐 만 아니라, 국제시장 소프트웨어융합산업 마케팅 및 맞춤형 수

출지원으로도 그 성과를 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5박 7일간) 10개 지역(경남, 부산, 울산, 경북, 전북, 전남, 광주, 대전, 충남, 인천) 27개 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정보통신(IT)시장개척단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을 다녀왔다.

참가한 경남 기업인 에니토이, 한국전자기술, 더컴퍼니, 위미르는 1:1 비즈니스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계약 상담액 668만 달러(한화 약 80억 원) 및 계약 협약(MOU), 수출계약(MOA) 120만 달러(한화 약 14.4억 원) 성사 등으로 타 지역보다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 시스템은 독일, 일본 제품 가격에 비해 50%이상 저렴하고, 기존 기계식 성형프레스보다 정밀제어가 가능하여 기술 또한 한 단계 높은 실시간 통합 관리 기능을 가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1차년도에 추진중인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의 기계설비 산업과 접목한 소프트웨어융합 기술 제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며, "광역연계 기술 교류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환경조성과 세계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혁신네트워크 글로벌화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김용규 기자

설계공모 과정과 결과, 다 보여드립니다

디자인 향상 시범사업 4개 사업 결과 부산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공개

부산시가 공공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범사업' 5건 가운데 4건의 공모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모절차가 완료된 시범사업은 △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당선자 숭베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수영) △ 북구 소방서 건립(당선자 ㈜아이엔지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안경) △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당선자 아키텍케이(K) 대표 이기철) △ 신평·장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당선자 에스유제이(SUJ)건축사사무소 대표 전상욱)이다.

부산시는 공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관련 전문가와 사업기획, 실행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공모안 심사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심사에서는 2차 심사 대상작 4~5 작품을 선정하고, 2차 공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심사의 전 과정은 관계자들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건축주책국 페이지스북'을 통해 생중계했다.(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제외)

심사과정이 공개되면서 사업별 설계 공모 참가자뿐만 아니라 향후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건축사를 비롯해 건축학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시도들은 공공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건축 관계자와 시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에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공공가치의 품격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최만식 기자

창원시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파란불

'마산만 수질개선 TF팀' 점검 실무회의 전국 지자체 최초 태스크포스팀 구성

경남 창원시는 최근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의 실천력 있는 추진을 위한 '마산만 수질개선 TF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마산만 수질개선 TF팀 총괄을 맡은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하여 창원시 해양수산, 환경, 하수, 하천분야 14개 부서 21명의 TF팀원이 참석하여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프로젝트'의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열띤 논의가 있었다.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는 육상오염원 저감 강화, 해양생태계 자정능력 제고, 해양환

경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의 3대 추진전략으로 2023년까지 마산만 수질 COD 1.7mg/L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산만 수질개선 TF팀이 45개 세부사업의 부가간 통합조정 및 유기적 연계 등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업추진에 시너지를 내고 있어 마산만 수질개선에 청신호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창원시가 해양레저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해양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산만이 깨끗하고 맑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마산만 수질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확신 한다."며 지금까지 실천의지를 담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최만식 기자

양주, 외국인사무소와 MOU 체결

경기 양주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수남)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대상 인구정책 추진 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과 김수남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비롯해 이희창 시의회 의장, 박창숙 양주시상공회 회장, 현동만 검조업협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해 성공적인 양해각서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양주시 인구정책 등 시정 홍보 활동에 대한 업무 협조,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등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공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양주시 인구친화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통해 양질의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성장·새시평 감동도시 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광명시, 전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 선정

지자체 최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0년간 환자 28,800여 명 관리 나서

경기 광명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광명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선도 지역으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시는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

체 최초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10년간 고혈압·당뇨병 환자 28,8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며 고혈압·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발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책을 펼쳐 심뇌혈관질환 안전 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광명/김미성 기자

연천군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군, 인·허가 행정지원과 기반시설 제공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 연천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유진초저온과 PEH사 관계자 및 연천군 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의 '친환경 융복합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진초저온에서 제안한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9월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으로 지정된 후 앞으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 사업당사자의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연천군은 인·허가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과 기반시설 제공을, 유진초저온은 사업시행자로서 연천군 랜드마크 조성으로 인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미국 PEH는 테마파크의 콘텐츠 기획 및



라이선스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엔 조성될 테마파크는 유진초저온의 LNG 냉열 활용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의 테마파크로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부지 100만㎡에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이 투입되어 2024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주요 구성 내용으로는 최신 할리우드 영화를 테마로 한 어트랙션, LNG 냉열을 활용한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워터파크 및 실내스키장, 한탄강 등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리조트 및 호텔,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체험마케팅' 기회제공을 위한 전용센터 등 창조적인 융합산업의 메카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와 같은 무비월드 조성사업으로 한탄강관광지 등 기존 관내 관광지와의 상승효과를 통해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은 물론, 대규모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무비월드사업 추진을 위해 양 사업자와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김영근 기자



www.huic.co.kr

하남 시민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 정기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주거정비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남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huic 하남도시공사

가평 잣고을시장 “보고, 듣고, 맛도 보고... GO GO GO 가평!”

기차모형 ‘청춘88열차’ 8동 푸드박스로 구성, 이색적인 모습에 각광 올해 96년 맞는 시장, 100여 개 점포 구성... 주말 공연행사 입소문



△ 푸드박스물 ‘청춘팔팔열차’는 가평잣고을시장의 명물이 됐다. 인종사 촬영 장소로 강취 ©

“팔팔한 청춘, 팔팔한 먹거리! 잣고을 ‘청춘 88열차’가 출발합니다!”
“가평잣고을시장”에서 최근 오픈한 푸드박스물이 관심을 끌고 있다. 푸드박스물의 이름은 ‘청춘88열차’.
가평장(5·10일 민속장)이 열린 날, 가평잣고을시장(가평군·읍 장터2길 10)으로 발길을 옮겼다.



△ 봄부터 가을까지 24주 토요일, 잣고을광장에서 진행되는 가평잣고을시장의 토요일 푸드박스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다양한 공연이 더해져 인소문이 났다고 한다. ©

■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푸드박스를 오픈

가평잣고을시장 ‘청춘88열차’가 지난 9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청춘88열차’를 찾았다고 한다. ‘청춘88열차’가 위치한 잣고을광장은 주말장터와 가평장(민속5일장)이 열리는 곳이다.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연간 사업비를 지원해 시장의 환경 정비 및 상권 활성화 사업에 치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차모형의 ‘청춘88열차’는 길게 이어진 8동의 푸드박스로 구성됐으며, 이색적인 모습에 관광객들에게 인종사 촬영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이를 살펴보면 △ 1동 레티오키피(버터와플, 커피, 음료) △ 2동 팟타임(볶음쌀국수) △ 3동 100s DOG(핫도그, 웨이크) △ 4동 잣고을153닭강정(닭강정) △ 5동 잣고을 꼬치(닭꼬치 외 꼬치류) △ 6동 리에또 파니노(샌드위치) △ 7동 휴일어때?(자핫도그, 소떡소떡, 수제정, 꽃차) △ 8동 불초밥(불초밥) 등이다.
앞서 가평군과 가평잣고을시장 상인회는 지난 7월 공개모집을 통해 8명의 창업자들을 모집했다.
잣고을153닭강정 김병진(61) 대표는 “주말과 휴일에 손님들이 많은데, 주로 시장 근처의 레일바이크를 즐기고 온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소개했다.
가평잣고을시장에 대한 입소문을 찾아보니,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되는 토요일장터도 한몫 했다. 토요일장터가 시작된 것이 2015년이니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 가평잣고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김인기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시장전문개발팀장과 김창근 가평잣고을시장 상인회장. ©

토요일이 되면 시장 안의 잣고을광장에 노란 천막들이 세워지고, 가평 농특산물을 비롯해 수공예품, 먹거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특설무대에서 공연되는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와 재즈공연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었다.
이곳에서 열리는 ‘두네토크마켓’도 주목해볼 만하다.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는 열리는 사회적 경제 거래장터이다. 또한 6월과 8월 사이에는 버스킹 음악공연이 있는 ‘두네토크마켓 야시장’이 진행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 로템식당에선 깍두기가 맛있었다. 해장국집은 깍두기가 맛있으면 음식도 맛있다고 하던가. 우거지 해장국은 전한 사골우수로 만들어서 국물이 개운했다. ©

■ 올해로 96년을 맞는 시장... 잣고을광장의 주말 공연행사 입소문

가평잣고을시장은 상설 전통시장으로, 가평5일장 외 상설시장이 없던 관계로 인근 상인들이 2015년 상인회를 구성하면서 가평전통시장조직이 인정시장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후에 ‘전통’이라는 글자로 빼고, 명칭을 ‘가평잣고을시장’으로 변경했다.
현재 가평잣고을시장 내의 구성은 구획 내 100여 개의 점포로 구성됐다.
가평장의 유래를 찾아보면, 1923년 장이 서기 시작했으니 올해로 96년을 맞는다. 인근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위치해 있지만, 장날에는 직접 재배한 고구마, 배추부터 오징어, 튀김, 호떡, 손두부 등 먹거리, 만물상까지 다양한 상인들이 모여든다. 가평과 인접한 강원도 춘천의 상인들도 오일장에 참여한다고 한다.
올 10월 기준, 가평군의 인구는 6만2,710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타 시·군과 달리 적은 인구수와 노령화 인구로 인해 가평잣고을시장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찾는 방법은 관광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 것이었다.
김창근(73) 가평잣고을시장 상인회장은 “가평군이 산간지역이다 보니 우시장이 형성돼 유명했다. 1970년대 우시장이 사라지면서 현재의 5일장이 형성됐다”면서 “현재 잣고을시장 일원에는 옛 관공호텔이 있었는데, 가평군의 지원으로 옛 건물을 헐고서 새로운 형태의 상설시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오는 2020년 가을쯤 가평잣고을시장 내에 옛 관광호텔 부지(5720㎡)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상설시장 건물을 건립한다.
앞서 가평군과 가평잣고을시장상인회는 지난 2017년 ‘골목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옛 중소기업청 주관)을 시작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2018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등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가평잣고을시장 상인회는 문화관광형시장 성장을 위해 서울광장시장, 강원도 정선아리랑시장 등 전국의 선진시장과 일본의 여러 유명 전통시장을 견학하는 한편, 인천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등을 통해 시장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김창근 상인회장은 “2020년 가을에 (건물이 완공되면) ‘잣고을시장’이라는 타이틀로 하나의 공간이 생긴다. 문화·경제 공간이 생기는 셈이다”며 “새로운 상설시장이 생기면, 이 앞의 광장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관광객들이 한 번쯤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김인기(61)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시장전문가는 “가평군은 이곳을 문화와 함께 하는 경제공간으로 계획 중이다. 현재 옛 가평역에 만든 뮤지컬리지, 자라섬 재즈페스티벌과 연계해 젊은층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관광 공간으로 계획 중이다”고 소개했다.

장날의 풍경은 따뜻한 분위기였다. 깊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시장의 모습은 평소보다 온기 있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잣고을시장이 상가형 시장의 형태이기엔 주말과 장날에 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상인들의 호객소리와 물건 값을 묻는 손님들의 모습들이 아련한 가을별 아래서 정겹게 그려진다. 관광객들의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강정을 판매하는 조상길 우리열(47·민속5일장 판매상) 사장은 “5년 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펄떡장이나 송탄장, 충북 제천장 등에 비해서도 좋다. 관광 온 손님이 있어서 매출이 좋다”고 말했다.

정오가 가까워지니 주변이 시끌시끌해진다. 시장 일대의 밥집들이었다. 국밥이나 족발류를 파는 식당들이 눈에 들어왔다. 활짝 문이 열린 식당마다 입구에는 나란히 벗어놓은 신발들이 어수룩어수룩 이어진다.



△ 잣고을광장의 동쪽 초입에 위치한 ‘골목집’은 1981년 문을 연 식당. 손만두가 이집의 인기 메뉴다. ©

■ 금강산도 식후경, 장날의 분위기는?

시장 서쪽의 끝에 위치한 ‘로템식당’은 가평군이 인증하는 ‘가평 100대 맛집’으로, 시장 안에서 ‘로템 해장국’으로 불린다.

‘가평 100대 맛집’은 지난 2016년부터 가평군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가평지부가 지정한 가평관내 맛집 식당이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올해 11월 기준 현재 91곳의 식당이 지정돼 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니 가게 안에는 앉은뱅이 밥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가득했다.

메뉴판을 보기도 전에, 많은 이들이 먹고 있던 ‘우거지해장국’을 주문했다. 메뉴판에는 선지해장국, 우거지해장국, 내장탕, 갈비탕 등이 적혀있었다.
해장국이 반찬과 함께 상 위에 올려진다. 잘 익은 깍

옛 가평역 ‘뮤직빌리지’ 이름 바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 녹음실 믹스룸 편집실 갖춘 스튜디오는 샘 도요시마가 설계 관심 끌어

두기 맛이기가 막혔다. 해장국의 맑은 국물을 한술 떠서 먹어보니 맛이 개운하고, 구수했다. 국물이 진했다. 주인장에게 물어보니 사골을 오래 끓여 국물을 내기에 손님들로부터 해장국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소고기와 우거지를 입 안에 함께 넣으니 식감이 좋았다. 밥을 반쯤 말아 먹다가 함께 나온 매운 고추와 고추기름을 곁들였더니 감칠맛이 났다. 물티슈로 이마의 땀을 닦는 손님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잣고을광장의 동쪽 초입에 위치한 ‘골목집’은 1981년부터 시작된 식당이다. 주 메뉴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손만두와 육개장이 많이 팔리고, 여름에는 콩국수를 손님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김재순(61·여) 대표는 “장날에는 평일보다 손님이 많은데, 주말에는 외국인 손님들이 제법 있다. 사골국물에 끓인 김치고기만두가 인기 있다”고 설명했다.

■ 성악가 조수미도 인정한 ‘뮤직빌리지’... 문화를 보고, 듣고-

가평잣고을시장에서 동쪽 터미널 방향으로 15분쯤 걸어갈 것을 추천한다. 옛 가평역이 있다. 이제는 이름을 바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는 3만7,257㎡(약 1만2,000평) 규모에 뮤지컬센터 ‘M스테이션’ 및 스튜디오 ‘S스테이션’, 연습동 ‘T스테이션’, 레지던스 ‘뮤즈빌’ 등 음악 관련 4개의 동과 레스토랑, 로컬푸드매장, 멀티플렉



△ 가평5일장이 열리는 날, 가평잣고을시장에는 사람냄새 나는 이야기꾼이 많다. ©

스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도 갖췄다.

특히 녹음실 믹스룸 편집실 갖춘 스튜디오는 샘 도요시마(Sam Toyoshima : acoustic designer 음향 설계가)가 설계해 관심을 끈다. 그는 영국의 애비로드 스튜디오 등 전 세계 유명 녹음실 300여 개를 설계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차지해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1월 문을 열었다. 가평군의 가평 뮤지 빌리지는 옛 가평역사에 뮤지컬센터와 스튜디오, 컨디션과 클럽 등 음악관련 시설을 집적화시켜 재즈 축제로 쌓아 온 음악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오미자(56·여) 도슨트 매니저는 “이곳의 스튜디오 ‘S스테이션’에선 지난 2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흥겹하게 레코딩 작업을 하고 갔다”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시골에 녹음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처음이고, 녹음 잘하고 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고 전했다.

가평역이 세워진 것은 1939년의 일이다. 이어 71년 뒤인 2010년 경춘선 복선 전철화 개통으로 대곡리에 있던 ‘가평역’이 달천리로 이전됐다. 이에 가평군이 옛 가평역 활용을 위해 추진했던 것. ‘음악역 1939’는 1939년 처음 개장한 가평역 역사를 이어 80년 만에 새로운 기능을 할 음악역으로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에 가면, 음악역 일대를 투어할 수 있는 ‘흥 버스’(12인승 전기자동차)를 탈 수 있다. 신청을 하면 도슨트 매니저로부터 친절할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흥 버스’는 가평군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며, 현재 자라섬(레일바이크 역까지 운영, 이용료 2,000원)과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올해 말까지 시범서비스 무료 운영) 등 2곳에서 운행 중이다.

■ 가평사랑상품권! 젊은층 ‘카드형’·어르신층 ‘지류형’ 선호!

가평군은 올해 가평지역화폐 ‘가평사랑상품권’을 지류형(일반발행), 종전식 선불카드형(정책수당, 일반발행) 등 2가지의 형태로 발행했다.

김재순 골목집 대표는 “젊은 손님 가운데 가평사랑상품권 카드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근 상인회장은 “우리 시장은 지역화폐를 대환영한다. 요즘 들어 많이 (가평사랑상품권 카드가 많이) 보이는데, 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쓰는 것 같다”면서 “지류의 경우, 오일장과 협의를 통해 활성화시키고, 받아오면 가평잣고을시장 상인회에서 교환해준다”고 전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올해 가평군의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을 살펴보면, 총 24억 5천만 원(정책수당 17억 원, 일반발행 7억 5천만 원)이다.

올 10월 기준, 가평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일반발행(지류형 8억 7,082만 원, 카드형 4억 3,669만 3,000원), 정책수당(3억 3,281만 4,000원) 등 총 16억 4,032만 7,000 원이다.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정선기 경제정책팀장은 “가평군에선 지류형과 종전식 선불카드형 등 2가지 형태의 ‘가평사랑상품권’이 발행되는데, 두 종류가 모두 꾸준히 잘 판매되고 있다”며 “젊은 층에선 카드형을 선호하고, 어르신 분들은 지류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평/최만식 기자



△ 가평잣고을시장 인근,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로 가보자. 음악역 투어버스 ‘흥버스’는 옛 가평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추천한다. ©

이천시 해외시장 개척단, 신남방 시장의 중심에 서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 유망중소기업 10개사 파견 1,417만 불 상담 실적... 수출 육성정책 적극 시행해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에 이천시 중소기업 10개사를 파견해 총 81건의 상담과 1,417만 불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기술개발을 통한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는 유망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점유 가능성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오고 있다.

이번 '2019 이천시 동남아 시장개

척단' 파견국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수출시장으로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내수시장의 성장과 젊은 인구의 증가로 구매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지속해오면서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도시인구의 증가로 개인 소비가 늘어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 중 민간소비증가율이 1위다. 여가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중소기업이 반드시 진출해야 할 곳이다.

싱가포르는 투명한 조달시스템, 안정적인 정치 상황, 영어 공용 언어 사용 등 글로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글로벌 기업이 7,000개가 넘는 등 외국계 기업에 우호적이다. 또 국토가 좁고 국내 제조업 환경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수입 제품을 취급하며, 우리나라와의 거래 역사가 길어 한국제품에 호의적이다.

이천시는 이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에게 현지시장성조사, 바이어섭외, 1대1 바이어 상담, 차량 임차료, 통역, 항공료의 50% 등의 지원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도왔다.

이러한 지원 속에 이천시 참가기업 10개사는 총 81건의 상담과 1,417만 불의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이중 향후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약추진 건 수 및 금액은 73건, 349만 불로 집계됐다.

특히 에너지 절감형 에코쿨루프® 시스템(Ecocoolroof® System) 기술을 개발한 우림메스틱공업은 싱가포르 건설 방수공사 업체인 A사와 50만 불 규모의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진단 의료영상장비 전문제조기업

인 에스지헬스케어는 의료장비 유통업체인 S사와 100만 불 규모의 상담과 미얀마, 태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논의하는 등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총 212만 불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에스지헬스케어 구자희 부사장은 "동남아 시장개척을 모색해왔는데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류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시장경쟁력 확보는 우리 기업에게 큰 기회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통해 참가기업들이 거둔 수출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동남아를 뛰어넘는 수출 육성정책을 적극 시행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데 더욱 더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19 이천시 동남아 시장개척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기업지원과 (031-644-2277) 또는 경과원 남부권역센터 (070-7726-9323)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남시현 기자

포천시, 관내 기업 수출역량 강화 나서

방방곡곡 수출플러스 설명회 개최
수출준비 해외마케팅 방법 등 강의

경기 포천시는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와 함께 최근 포천군 도자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현장형 수출 지원 설명회인 '2019년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플러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플러스 설명회에는 포천시 40여 개의 수출기업, 50여 명의 기업임직원 및 담당자가 참석했다.

수출준비와 해외마케팅 방법, FTA와 관세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고 관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서 및 품목별 원산지 수출자 인증서 취득 무료 지원, FTA 컨설팅 교육, 1:1 현장 수출예로상담의 기회가 제공됐다.

배상철 기업지원과장은 "포천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및 일본 수출규제 등의 이슈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오늘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플러스 설명회에서 이루어진 기관별 강의 및 1:1 현장상담을 통해 수출기업애로를 해소하고 포천의 수출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김영근 기자

광명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실천 다져

'지속가능한 광명, 사람을 잇다' 개최
오는 30일까지 '시민참여단' 모집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사회 활동가, 공직자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속가능한 광명, 사람을 잇다'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본·이행 계획 수립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공동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환경, 사회, 경제 등 이미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과 활동가 등이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청소년 댄스 동아리 '폴라리스'의 재능기부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5대 전략과 17개 목표를 알아보는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시민이 이끌어 가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로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광명시민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지속가능 광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과 각오를 듣는 '지속가능발전 시민이 주인공입니다'가 열려 각 분야와 세대를 대표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실천 다짐을 발표했다.

이날 청소년을 대표한 서준영 군(충현고3)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스스로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광명/김영선·박종철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시정연설 통해 2020년도 비전제시

지역경제 활력증진 등 6대 과제 제시 3,027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제출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는 25일 열린 제264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구례군정의 비전을 밝혔다.

김 군수는 먼저 민선7기 출범 후 소동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천은사 입장료를 폐지하고, 지역발전혁신협의회를 통해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구례교육공동체를 출범 시키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에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사업,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과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한 것에 군민과 군의원에 감사 표했다.

이어서 김 군수는 새해 군정 운영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력증진,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구례형 교육도시 추진, 명품 관광도시 조성, 친환경 생명농업 확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소통과 혁신행정 추진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고, 자연드림 2단지 조기입주를 추진하고, 3단지 추가유치 등 신규 기

업유치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고, 5일 시장 주말장 전환,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복합관광장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례읍 중심지를 압축도시로 만들고, 마을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전원마을과 소규모 공영택지를 조성해 귀농귀촌인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도 18호선과 19호선 확포장을 위해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1000원 버스는 새롭게 운행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구례형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례교육포럼 개최, 평생교육도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특색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구례학사 이전과 매천도서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네 번째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리산정원에 짙어인과 모노레일 설치, 수목가옥 추가 조성, 공립수목원 등록을 추진하고, 화엄지구와 온천권역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장차 산림휴양특구로 발전시키 나갈 계획이다.

섯진강에는 힐링생태공원, 스카이라이프, 순환탐방체계를 만들어 체험중심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은 보완용역을 거쳐 군민서명서와 함께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친환경 생명농업을 확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특히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을 조성해 농업의 6차 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득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유통과 수출비용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온정있는 복지공공체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고, 국민민대아파트를 조성해 취약계층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경로당에 각종 생활 서비스 제공, 자연친화형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 등 세대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해 군민건강을 돌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소통과 혁신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맘터대화와 장터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군정 주요 정보를 SNS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3개 읍면에서 모든 8개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고,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개선과 적극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김 군수는 새해 예산안은 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사 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새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역할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구례군은 3,02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다.

구례/이홍만 기자

보성, 추경 예산 6천억 원 돌파

전남 보성군은 25일 보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6,286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718억 원 대비 568억 원이 증가해 보성군 개척 이래 사상 처음, 6천억 원 시대를 열었다.

보성군은 이번 추경안에 보성 위생매립장 용역 보수공사의 5건의 특별교부세,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필요한 용역 및 부지매입비 등 30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체계 강화, 야생 수렵장운영 및 산불예방, 마을방범 CCTV설치 등 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농어민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조성, 고막중자 대량 생산기반 구축,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사업 등 농어가 소득 안정 및 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추가됐다.

특히 사계절 비수기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와 관광분야도 보강됐다.

아울러 보성군 관계자는 정부 최우선 정책인 재정건조와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실시했음을 강조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예산 6천억 원 시대를 열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집행으로 1등 보성, 활력 보성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영만 기자

영주시, 2020년 예산(안) 7,926억 원 편성

전년비 832억(11.73%) 증가해 지속가능한 영주발전 토대 마련

경북 영주시가 2020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보다 832억 4,000만 원, 11.73%가 증가한 7,926억 원 규모이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7천 100억 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631억 원, 지방교부세 3,145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85억 원 등이고 특별회계는 826억 원을 차지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영주발전 토대마련'을 위해 △일자리가 있는 경제도시 기반마련 △농특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아우르는 혁신농업 △전통문화로 세계인과 소통하는 힐링·관광 도시건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영주 △정주여건 향상으로 시민이 편안한 도시건

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경제분야의 주요 투자사업은 100억 규모의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운영비로 12억 원, 전통시장 간판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지원 7억 원 편성, 영주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소재 산업육성을 위해 경량알루미늄소재 기반 융복합 사업비 6억 원,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운영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장학현 영주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 및 힐링·관광도시 영주건설을 통해 지역의 경제에 새로운 불을 지피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복지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영주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영주/정승호 기자

남원, 국·도비 49억 등 총사업비 85억 예산확보

지방정원 조성 4년간 총 60억 확보 녹색기반시설 확충 국·도비 25억 등

전북 남원시는 관광지를 연계한 지방정원 조성에 연차별 도비 지원 사업으로 60억을 확보하고 녹색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5억을 확보하는 등 총 85억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

남원의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총 6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방정원은 600년 전통의 사랑의 정원 광한루와 춘향테마파크, 합파우 소리체험관, 김병중미술관, 항공우주전문대, 오감만족 숲 등을 연계한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체험시설과 볼거리를 함께 제공할 계획으로 내년 초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부터 3년간 조성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노암산업단지

1ha에 10억을 확보해 조성한다.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의 완충녹지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변아파트·주택단지 등 시민 생활권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와 더불어 숲속 습터로 활용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선정되어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4개소에 3.8억을 확보해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벽면녹화로 건축물 난방 등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도심의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남원시청 담당부서에서는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을 위한 녹색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하고 조성된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녹지경관이 유지되도록 최선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이남숙 기자

유두석 군수 '2020년은 장성군 발전 골든타임'

시정연설서... 청운지하차도 개설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등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해 밝혔다.

유두석 군수는 최근 열린 장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올 한해 군정에 대한 성과 및 소회와 더불어 내년도 군정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군정 성과에 대해서는 5만 군민의 염원이었던 KTX 장성역 정차,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홍길동무 꽃길축제 및 노람꽃잔치 성공 개최,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성공적 운영, 한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고령 대응분야 최우수상 수상, 정부공모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선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내년도 역점사업으로는 읍시가지와 읍 서부권을 연결하는 청운지하차도 개설, 장성 교통시스템의 대변혁을 가져올 스마트 하이패

스 전용 IC 설치, 장성 남부권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을 꼽았다.

이와 함께 고려시엔트 부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은 내년도 개발모델 운영 완료 후 현대적인 복합주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려시엔트 측과 협의하고 '장성 비전 2030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일로우시티 미래를 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인 삶의 질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관내 농업인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전남도와 함께 새롭게 도입·추진하고 중소농가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푸드플랜을 통해 먹거리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거버넌스를 통한 군정 성과에 대해 '일념통전'이라 평하고 "모든 군민이 온 마음을 합하니, 하늘도 감동해 불가능한 일도 이루었다"며 성원을 모아준 군민과 향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성/박태지 기자

한국당 "지소미아 합의' 진실 공개, 정의용강경화 경질"

나경원 "정확한 손익계산서 공개, 외교·안보라인 교체해야"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켰다" 정부·여당 압박

자유한국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 합의 과정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진실 공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를 향해 일본에 대한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얻어낸 '외교적 성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없고,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켰다'는 일각의 비판을 지렛대 삼아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 결실이 진정한 외교적 성과라면,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라.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뭉 얻어냈는지 설명하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을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 넣었고, 한·미·일

공조를 위해 수준까지 끌고 갔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외교·안보라인의 경질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가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과 수시로 소통하며 마치 공감대도 형성한 것처럼 말했다"며 "모두 허무맹랑한 허풍이나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지해서 사고를 연달아 치는 것이거나 한미동맹을 작정하고 깨려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외교·안보를 맡길 자격이 없다. 현재 외교·안보라인으로는 방위비 협상도 불리하다. 즉각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도 "일본에서는 퍼펙트한 게임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판정승이라 이야기한다"며 "우리 정부가 한 말을 믿고 있는데 그동안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유감스럽게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일본 아베 총리나 지소미아 관련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왜 대통령은 한마디 안 하는가. 지능·정보화 시대에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장은) 대한민국이 일방적인 대상·외상을 입은 것"이라며 "국론분열과 한미동맹의 균열·불신을 가져온 이번 일에 대해 이 정권은 역사적·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내정치에서 좌파연론 동원하고 동계조작하고 국민을 속였던 것들이 통할 것으로 생각했던 문재인 정권의 패착으로, 국가 망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백귀성 기자

용인시의회,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재촉구

대도시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필요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재촉

경기 용인시의회는 21일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진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시의회는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법안심사가 8개월간 미뤄지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용인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촉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용인/남시현 기자

김명호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민감한 이슈 쏟아내

경북도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 대책 시급 도청신도시개발 목표인구 재조정 촉구



"변화를 일으키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수용하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이 11월 22일 개최된 제312회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변화를 모토로 민감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먼저, 김명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신도시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 및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경북도청의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과, 2018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행정상조치 142건과 재정상조치 81억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의원은 지방분권 전문가답게 정부의 현행 재정분권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질타했다.

2019년과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하기로 했지만 배분원칙을 이행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재정의 일정한 순증후과 이면에 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다고 우려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할 것과, 기존 1:2:3인 안분비율을 1:3:5로 확대할 것,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및 균등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보전분을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이어졌다. 김명호 의원은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설정은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신도시에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설명하고, 설령 안동·예천이 통합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면서, 더 늦기 전에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함께 재검토하여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열린 도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줄어들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수입농산물 비중이 높아지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의소득 향상과 농업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안동출신 3선 의원으로 겸손한 리더십을 통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3선 동안 도정질문 7회, 5분자유발언 17회, 대표발의 33건을 포함한 151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광주시의회, 의화누리시스템 구축

경기 광주시의회는 의정업무의 스마트한 추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화누리시스템(인트라넷)을 개발하고 업무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의회누리는 의원 간 및 의회사무국과 전자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하기 위해 개발된 차세대 정보 시스템이다.

의회누리에서는 각종 공지사항과 협의사항을 PC 또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의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동시에 행감지적사항 관리 등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자료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종이 없는 스마트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월례회의 및 각종 보고회 시 서면자료 대신 의회누리를 사용한 전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의회누리 개발로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견교환과 협의결과 도출을 통해 더욱 빠르게 시민의 목소리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의회누리의 활성화와 기능강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을 지난 19일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광주/남시현 기자

이해찬 단식장 방문 "황교안, 기력 빠져 말도 못해"

"김도읍 비서실장에 협상하자 했다" 황 대표 지지자들 "물러나라" 항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단식투쟁 6일째에 접어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사당재 인근 텐트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와 5분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 대표의 방문에 황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향해 "물러가라"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와 비공개로 만남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기력이 빠져 말도 못한다"며 "김도읍 비서실장에게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미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관련한 주요 합의시도의 여지를 황 대표가 원천 봉쇄했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여지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며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 저와 저희 당의 부족함을 깨닫게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자유와 민주와 정의가 비로소 살아 숨 쉴 미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의 건강은 단식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실제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정이 난 22일 오후에는 지지자들에게 걸어가 "국민의 승리"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지난 23일 오후부터는 자리에 눕는 등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아직 황 대표의 건강이 단식을 당장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구급차 및 의료진 대기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최광수 기자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의정부는 시민과 호흡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내년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 확대

도, 용인·김포·양평 등 3개 시군 시범사업 실시 상가 1억, 공장 1억5천, 재고자산 3천만 원 실손

경기도는 용인, 김포, 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오는 2020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안성시, 아양택지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집중 계도 후 내달 1일부터 단속

경기 안성시는 25일 아양지구 택지 개발사업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단속 구간을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대 실시 구간은 신원아파트 도시아파트 ~ 농산물 새벽시장까지로, 기존 단속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

을 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으로,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급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 일반소상공인자금 △ 사업전환자금 △ 여성가장지원자금 △ 창업초기자금 △ 고용안정지원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풍수해보험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p를 할인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김남근 도 자연재난과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책자금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업무담당자교육,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원/김재일 기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이용자 94.4% 만족

의정부시, 아동 보호자 대상 설문 조사와 아동간 상호작용 가장 높아

경기 의정부시가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은 보다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만 0세아 및 만 1

세아만을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으로 2008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교사 1명당 만 0세아는 2명, 만 1세아는 3명까지만 전담하여 보육한다.

만족도 조사는 2019. 11. 1. ~ 11. 10. 열흘간 진행되었으며, 설문 대상자 170명중 167명이 참여하였다. 어린이집 환경, 안전 및 위생, 급간식 관리와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과 부모·아동의 상호작용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4.71점을, 만족 이상 비율은 94.4%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가장 낮은 항목은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홍보로 집계되었다.

현재 의정부시는 11개소의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이미현 보육과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홍보 부분에 더욱 노력을 하겠으며,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문제 해소 및 출산율 제고와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광명소방서, 청소년119안전뉴스서 장려상 수상



철산초등학교 6학년 8명 참가 불나면 대피먼저 주제로 연기

경기 광명소방서는 최근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13회 전국 청소년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서 광명시 철산초등학교 학생들이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119안전뉴스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생활 속의 안전문제를 스스로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안전아이디어로 흥미롭게 제시하는 UCC를 제작, 그것을 무대에서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대표 18개팀 300여 명이 참

석하여 경연을 펼쳤으며, 각 출전팀이 제작한 UCC영상을 7분 이내로 무대에서 재현하여 표현력 및 주제전달, 청중의 관심도, 주제의 적절성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였다.

장려상을 수상한 철산초등학교(교장 송민영)는 지난 9월부터 이주연 지도교사와 6학년 학생 8명이 함께 화재대피 방법을 주제로 화재발생 시 안전한 대피방법을 익숙한 노래형식으로 준비하여 경연 현장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전용호 서장은 "청소년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경연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철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광명/김미성 기자

장흥군, 내저항에 해삼 종묘 1만5천미 방류

수출전락품종으로 부가가치 높아 해삼 방류해 어촌 소득 향상 기여

전남 장흥군은 최근 대덕읍 내저항에서 해삼 종묘 1만5,000마리를 방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연안해역의 어족자원이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전락품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해삼을 방류해 어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바다에 뿌려진 해삼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 생산

한 해삼종자 물량을 확보한 것이다. 방류행사에는 어촌계주민과 어촌계장단, 장흥군 등 25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방류행사 이후 해삼종자가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어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장흥군에서는 2007년 5월부터 방류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에는 감성돔, 전복, 점농어 등 경제성 있는 어종을 방류하여 안정적인 어족자원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김정길 기자

안산시, 스마트도서관... '출퇴근하면서 편리하게'

상록수역·한대앞역·중앙역·초지역 등 유동인구 많은 전철 4호선 확대 운영

경기 안산시 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편리하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24시간 무인 도서대출 반납시스템으로, 바쁜 일상에서 시민들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출·퇴근하면서도 편리하게 책을 대출·반납할 수 있다.

안산시 도서관에 가입한 시민은 누구나, 1인 2권의 책을 10일 동안 빌려 읽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5일 지하철 환승 및 주변 대단지 아파트 입주, 신안산대학교 학생 등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있는 전철 4호선 초지역에 '안산시 초지역스마트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에 나섰다.

이로써 안산시 스마트도서관은 △ 상록수역 3·4번 출구방향(신간, 베스트셀러 등 600권) △ 한대앞역 2번 출구방향(신간, 베스트셀러, 웹툰 등 260권) △ 중앙역 2번 출구방향(신간, 베스트셀러 등 600권) △ 초지역 1번 출구방향(신간, 베스트셀러, 웹툰 등 260권) 등 총 4개소가 됐다.

특히 작년 12월 상록수역과 중앙역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은 월 1천 600여 권이 대출될 정도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주 이용객은 출·퇴근 시간대에 짬을 낸 일반 성인(전체 92.4%)들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 상록수와 단원구에도 스마트도서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며 "도서관 방

안산시 '스마트도서관'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대출권수 / 이용자수 (월평균)

지역	대출권수	이용자수
상록수역	723권	644명
중앙역	600권	518명

연령대별 이용현황

연령대	비율
초등학교	2%
중·고교생	5.6%
일반	92.4%

스마트도서관 이용정보

대출권수	1인 2권
대출기간	10일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도서교체	분기별

스마트도서관 위치

- 상록수역 3, 4번 출구방향 (600권 비치 / 신간, 베스트셀러)
- 한대앞역 2번 출구방향 (260권 비치 / 신간, 베스트셀러, 웹툰)
- 중앙역 2번 출구방향 (600권 비치 / 신간, 베스트셀러)
- 초지역 1번 출구방향 (260권 비치 / 신간, 베스트셀러, 웹툰)

안산시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산중앙도서관

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 '책 읽는 도시, 안

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번개처럼 빠르게 저장하다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 Thunderbolt™ 3 외장 스토리지

Thunderbolt™ 3 기술과 NVMe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는 전문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눈부신 전송속도를 선사합니다. 슈퍼카를 달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열 처리 기술과 압축화 기술로 완성한 최상의 스토리지를 경험해보세요.

* USB 인터페이스 기능만 지원하는 PC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Thunderbolt™ 3 포트가 설치된 Macs 및 Window PC에서만 호환 가능하며, 호스트 구성에 따라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Mac OS X Sierra, High Sierra 10.12 또는 그 이상, Windows 10 64 bit RS 2 또는 그 이상) 최대 읽기/쓰기 속도 실험 시스템 환경: Dell Alienware System (Dell 17 Alienware 17 R5), OS - Win 10 x64, CPU - Intel® Core™ i7 8570H(4.1GHz), Memory - DDR4, 16GB 2667 MHz, BM Tool - CDM 5.1.2

X5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세요.

SAMSUNG

멈췄던 SK하이닉스 전력 지중화사업, 이천시 중재로 탄력



임태준 시장 직접 갈등 중재 해결 실마리 찾아 주민대표, 반대 입장 철회하고 사업 지지 선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SK하이닉스 M16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경기 이천시의 갈등중재 노력과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M16 공장 전력인프라 확보를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답보상태에 놓이며 내년 말 예정된

M16 공장의 정상가동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멈출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주민들과 SK하이닉스 간의 적극적인 중재를 결정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전력·전파 분야 전문가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시공사인 SK건설의 면담을 수차례 주선하여 당사자간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2일 해당지역 주민대표들이 임태준 시장을 찾아 그 간의 공사반대 입장을 내려놓고 지중화사업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혀왔다. 이날 마을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종복 시장은 "지중화사업이 M16 공장 정상가동에 커다란 변수라고 들었다. 이천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대국적인 차원에서 공사가 정상화 되도록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SK하이닉스가 더욱 분발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핵심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지중화사업을 지지하게 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임태준 시장은 "주민여러분께서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 주셨다"며 "주민여러분의 뜻을 SK하이닉스 측에 잘 전달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오늘처럼 먼저 해결책을 내놓아주시니 시장으로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다"라며 주민들의 결정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M16 공장의 전면 가동 시점에 맞춰 공기를 최대한 단축, 2021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천/남시현 기자

비규격품 한약재 조제·유통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기획수사 통해 불법행위 15곳 적발 부산시, 의료행위 질서 확립 나섰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한약재의 제조·유통·사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와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품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업자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 등 15곳을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행위로는 △ 비규격품 및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사용·판매(2

곳) △ 허가받은 장소 외 한약조제(1곳) △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 사항 위반제품 제조 및 판매(2곳) △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판매(4곳) △ 무면허 의료행위(6곳) 등이다. 부산시는 이들 업소를 형사입건했다. 특히 A한약국의 경우,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대학교 실습실에서 한약재인 오직산 4kg을 한약으로 조제·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B한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이나 지난 포황, 황정, 자황, 파극천 등 다수의 한약재 규격품을 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C한약국의 경우, 식약처가 고시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준에 맞

지 않는 비규격품을 시장에서 구입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되었다. 또한, 6곳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이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및 집 지역의 오피스텔 등에서 인스타그램 홍보와 카카오톡 예약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최만식 기자

광주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경기 광주시는 오는 27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범질서 위반행위 근절과 체납징수 및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광주경찰서와 연계해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남시현 기자

고양시 명성운수 파업, 소통으로 풀었다

택시·관용차량 이용 출·퇴근길 확보 노·사정 합의... 선 정상화 후 협의

경기 고양시는 지난 19일에 파업에 돌입했던 명성운수가 24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명성운수 20개 노선(270여 대)이 얼어붙은 5일간 고양시는 버스·택시·관용차량 등 170여 대를 총 동원해 출·퇴근길을 확보한 한편, 노·사측과 소통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특히 이번 합의 배경에는 지난 22일 이재준 고양시장과 노·사 대표 간 3차례의가 돌파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노·사 양측의 고충을 경청한 뒤 시민불편을

고려해 우선 운영을 정상화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추가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노·사 양 측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향후 명성운수 노·사에서는 3주간 추가 집중교섭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버스파업과 더불어 철도파업까지 겹치면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발생했는데, 운영을 재개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추가 집중교섭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십여 년간 파업 전례가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삼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성태 기자

"임산부 위급상황 119구급서비스 받으세요"



경북도, 2020년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 전격 시행나사

경북도는 저 출산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아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를 2020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 모든 임산부가 출산관련 정보를 119에 사전 등록하면, 위급한 상황으로 119신고 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신속한 응급처치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신고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등록된 가입 임산부가 출산예정일에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119에 신고하면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서비스

도 포함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해 영어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통역 3차 통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를 위해 지난 11월 11일 여성 구급대원(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83명을 현장에 추가로 배치완료 했으며, 분만세트 보강과 응급분만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화영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경북도내에는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13개나 되고, 응급 의료취약지역(16개 시·군 전국 하위수준)이 많아 늘 산모들은 긴장을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내 보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북도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어려움 없이 출산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김성초 기자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과거의 성공이 성적이었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열정'입니다.



광명시, 이 시대 열혈 청년들에게 심포를 주다

‘열혈 청년들의 심포 페스티벌’ 개최 청년들 큰 호응 박승원 시장, 진심 담은 이야기로 청년에게 용기 줘

광명시는 지난 23일 소하동 라까사 호텔에서 ‘열혈 청년들의 심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창업자,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 100명이 참석하여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열띤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행사 1부에서는 “청춘은 짐이 아니니까요”라는 주제로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의 강연과 ‘리더들이 들려주는 나의 청춘이야기’ 코너로 박승원 광명시장, 백재현 국회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사관학교장이 자신들의 청춘 이야기를 들려주며 현 시대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시절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아가 자신도 성장할 수 있고 사회도 성장할 수 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이웃을 생각하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광명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주택을 많이 짓겠다. 힘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연대하고 도전하며 살아갈 바란다”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2부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강의’와 ‘투자자를 사로잡는



커뮤니케이션’ 강의가 이어졌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꾸준히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예정이다. 광명/김영선·박종철 기자

파주 감악산 생태계복원사업 5억 투입 완공

아름다운 힐링 명소 ‘탈바꿈’ 탐방객들 휴게공간으로 조성

파주시는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9-14번지 일원 6,220㎡에 생태계복원공사(국비5억 원)가 지난 8월 착수해 완공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전 대상지는 과거 불법 음식점이 있었던 곳으로 2011년 수해로 인해 그동안 각종 건축폐자재 등 생활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해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대체 생태계를 창출하는 사업이며 훼손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과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감악산은 경기5악의 하나로 2015년 출렁다리 설치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복원사업이 시급했다. 이곳에는 수목 및 초화류 식재는 물론 산책로 조성과 파고라 등을 설치해 아름다운 휴게공간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 외에도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돌무더기, 나뭇더미를 쌓고 생태 안내판을 통해 생태복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설마리 신영일 이장은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완공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기덕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감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 명소로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30일 마감

10년 이상 합산거주만 24세 청년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11.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

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수원/김재일 기자

시흥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준공식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은 27일 지역 커뮤니티공간으로 별관을 새롭게 열게 됐다.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친화공간으로 마련된 별관(구 능곡어린이집)은 준공식 이후 늬내골실버작은도서관, 마을카페, 지역주민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한다.

준공식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식전 행사, 개회식, 라운딩, 다과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체험부스로 팸아트, 책갈피 만들기, 핸드드립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어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 후, 늬내골실버작은도서관에서 마련한 「쑥삭 꽃을 그렸어」의 저자 유현미 작가의 저자특강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흥/이등원 기자

의정부호원1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괴산 절임배추 등 우수한 품질 농산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의정부시 호원1동은 최근 호원1동 주민센터 앞에서 자매결연 농촌인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과 함께 청정괴산의 절임배추 등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호원1동과 괴산군 불정면 공무원 및 자생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김장철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임동이 지나며 갑자기 찾아온 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사전 주문한 절임배추를 비롯하여 현장 판매를 위해 준비된 잡곡 등 모든 농산물 판매가 장 개설 후 두 시간여 만에 조기 완료가 되었다.

정경범 불정면장은 “매년 직거래 장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괴산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고 착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심주 호원1동장은 “이런 아침부터 직거래장터 준비 및 운영에 적극 힘써주시는 불정면과 호원1동 자생단체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괴산군 불정면과 다양하게 교류하여 호원1동 주민에게 질 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직거래장터가 두 기관 우호증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1동과 불정면은 2008년부터 자매결연한 인연으로 매년 직거래 장터 개최, 지역행사 방문 등 지금까지 상호 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안산시, 성희롱 예방 포스터 제작·배부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기관



안산시는 최근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시설)에 성희롱 예방 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민간위탁기관(시설)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를 마치고 후속조치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한데 이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예방 포스터를 제작했다.

시는 민간위탁기관 뿐 아니라 관내 소기업(50인 이하) 기업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기관에도 포스터를 배부할 예정이다.

포스터 내용은 성희롱 예방 조치 의무 및 상담 기관이 대체 있으며, 함께 배부된 리플렛은 성희롱 개념 및 유형, 판단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포스터를 각 기관 내 게시관에 부착해 전 직원이 성희롱 예방 내용을 숙지하고, 기관장·관리자의 예방교육 의무인식 인지 및 성희롱 예방에 적극 동참·유도를 통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민간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이 지속적 관심과 관리로 성희롱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용인시,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오피스텔 등 사전검토제 높은 평가 도내 기초단체 중 우수정책 두각

용인시는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광역 및 기초단체에 대해 건축허가 적법 처리를 비롯한 건축행정 건실화 정도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이번 평가에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시공·철거의 안전성 및 효율성,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항목 14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에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우리가 정부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건축행정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건축행정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의정부시 녹양동 우리동네 골목 상담반 운영

발굴된 위기가정 맞춤형 급여 제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와 구직 상담



의정부시 녹양동 맞춤형복지팀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녹양역 앞에서 우리동네 골목 상담반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에 실시한 1차 상담에 이은 2차 상담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과 함께 복지제도 홍보 안내문 배부 및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홍보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현장 상담 중 발굴된 위기가정은 동주민센터를 내방하여 맞춤형급여와 긴급지원, 기초연금 신청 등 복지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과 구직 연계 등을 받을 예정이다.

박춘섭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기다리는 복자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복지 상담으로 주민이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정보부족과 신청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복지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진혁 녹양동장은 “복합적인 사회복지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에는 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방문 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복지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화성시, 가족·다문화 정책 의견수렴 현장 간담회



이재명 도지사 참석, 소통의 시간 가져 체류 외국인 늘어나 적극적 대응 필요

화성시는 최근 송린이음터 4층 문화교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족·다문화 정책 의견수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송옥주 국회의원, 김인순 경기도의원,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낙주 화성시 복지국장, 유희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이현주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효정 발안문화센터 상인회장 등이 참석해 센터의 이용자 대표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 설명 등 화성시 가족·다문화 정책 현안 발표 △도지사 주재 현장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화성시가족통합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화성/김영근 기자

성남시 FC 상대원1 여성 축구단 탄생

평균 나이 47.5세, 17명으로 구성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 ‘관심 집중’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여성 축구단이 창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중원구청에서 김선옥 단장을 비롯한 평균 나이 47.5세, 단원 17명으로 구성된 FC 상대원1 여성축구단이 창단식을 갖고 출범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시체육회의 전문적인 지원과 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수 선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여성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뜻을 모아 창단

을 하게 됐다.

FC 상대원1 여성축구단은 매주 화, 토요일마다 상대원 유소년축구장에서 12월부터 맹훈련을 펼칠 예정이다.

김선옥 단장은 “늦은 나이에 여성이 축구하는 것에 많이 망설였지만 성남시의 지원과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열심히 참여할 것이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성남시 체육회에서는 앞서 여성 축구단을 창단해 현재 10개동의 여성 축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 축구단을 지속적으로 창단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남시현 기자

포천, '2019 포천시 미래지향 인구정책 공감 포럼' 개최

인구 유입을 촉진해 지역발전 도모하기 논의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 만들어

포천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2019 포천시 미래지향 인구정책 공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사회 위축을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포럼에 참석하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은 포천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논의하는 등 함께 고

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는 '내 직장 포천 사랑 주소 갖기' 비전 선포식, 인구정책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포럼은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 단장인 허훈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장이 주재한다. 시정혁신연구단은 외부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참신한 시정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제발표는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가 '포천시의 정주 기반 확대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연세창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공공정책으로 해결하는 인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패널토의에는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 연세창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신상록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김호일 골드만홀딩스 상임고문, 하재경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시민 스스로 시의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함께 협력해 적합하고 유효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김영근 기자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개최

민락 LH브라운빌리지에 설치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해

의정부시는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양육공백이 있는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에 맞춰 민락 LH브라운빌리지 커뮤니티센터 1층(용민로 441)에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2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시·도의원, 센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 테이프 커팅식, 센터 라운딩을 함께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지난 6월 의정부시와 LH 서울 지역본부는 민락동에 위치해 있는 LH브라운빌리지 커뮤니티센터(156.84㎡) 사용에 대한 무상임대차 협약을 체결하였고, 의정부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 활동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정부시에서 처음 개소하는 만큼 초등학생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광명시, 아동학대 ZERO(제로) 캠페인 전개



광명경찰서 등 8개 관련기관 합동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실시

광명시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5.)을 맞아 최근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인근에서 아동학대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광명경찰서, 광명여성의 전화, 광명시 육아종합지원

센터, 광명시건강강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명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광명시어린이집연합회 등 8개의 기관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보호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캠페인에서는 세계 아동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다섯 손가락 중 1개의 손가락에 스티커를 붙

광명/김미성 기자

평택안중도서관 2중합자료실 개설

평택시립 안중도서관 제2중합자료실이 3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8일 목요일 문을 연다.

제2중합자료실은 기존 공간의 문제점 개선과 포화상태인 장서를 분산 배치해 여유로운 도서관 열람환경을 조성했으며 자연친화적인 편안함이 느껴지는 '안중정원'을 콘셉트로 초록 식물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꾸며졌다.

2005년 5월 개관 이후 평택 서부권역 거점도서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독서정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의 독서 사랑방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실을 맞이해 28일부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개실 기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8일은 축하 케이크 만들기, 마크라메 가방 만들기, 29일은 떡 케이크 만들기, 30일은 풍선 만들기 체험, '공부머리 독서법' 저자 최승필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평택/이등원 기자

'2019 안산시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개최

회원, 내·외빈 300여 명 참석
화합과 결속 다지는 시간 가져

안산시는 최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올 한해 새마을운동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2019 안산시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평가대회는 내·외빈 및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 및 25개동 기수단 입장식을 필두로 2019년 새마을운동 활동영상, 감사패 전달, 축하 및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 국무총리표창 고태영(백운동 새마을협의회)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강경자(안산동 새마을부녀회) △ 경기도지사표창 오광희 등 8명 △ 안산시장표창 송찬용 등 26명 △ 안산시의장표창 김종광 등 12명 등 총 84명이 영예로운 수상을 했으며, 종합평가에서 △ 백운동새마을회(최우수상) △ 와동·월

피동새마을회(우수상) △ 부곡동·안산동새마을회(장려상) 등이 각각 수상했다.

정차동 안산시새마을회장은 "오늘이 자리는 올 한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새마을 가족들의 노고와 봉사를 격려하고 치하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땀과 정성을 밑거름으로 이룬 자리인 만큼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좋은 결실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나이 들면 얼굴에 책임져야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은 내가 아닌 우리가 잘살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신 새마을회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안산이 경기도 핵심도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수상자와 참석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연천, 청년장병 위한 바리스타 운영

연천군일자리센터는 관내 군부대 軍정년장병(신병부터 전역예정 병장)을 대상으로 2019년 총 7회 210명에게 찾아가는 취업특강 및 진로설계 상담을 실시, 장병들과 군부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연천군일자리센터는 청년장병들이 군복무기간동안 자기개발 단절로 인한 사회 복귀의 어려움 해소와 유익한 군복무가 될 수 있도록 청년장병 20명을 대상으로 「청년장병 바리

스타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화,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씩 12일간 제28사단 81연대 북카페에서 진행한다.

연천군일자리센터는 본 교육과정에서 장병들의 참여 열기가 높은만큼 군과 협의하여 청년장병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김영근 기자

오산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 FESTA' 성료

오산시는 최근 오산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에서 학생 및 학부모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로진학 FESTA'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진로진학FESTA'는 교육부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산시와 안양대를 비롯한 5대 대학이 함께 주최했고 입학사정관 1:1 학생부종합전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대상자는 관내 각 학교에 지원학과 계열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인문/신학/사회/경역/이공/자연/예체능/항공/보건/사범 계열로 나누어 고르게 모집했다.

이날 입학사정관 1:1 컨설팅에서는 관내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평소 학생부종합전형 등 진학과 관련된 궁금증을 현지 입학사정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진학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산/이승배 기자



중흥건설,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 11월 22일 건본주택 개관 예정



- ▶ 마곡지구-상암 DMC 인접해 서울 접근성 '우수'...주변 도로 통해 차량 이동 '수월'
- ▶ 상암 등 서울 주요 도심이 생활권...미디어 복합타운 등 개발호재 미래가치 '관심'
- ▶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A2블록 위치, 전용 59~84㎡ 총 894세대 규모

중흥건설이 오는 11월 22일 건본주택을 개관하고 경기 고양 덕은지구에서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는 경기도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A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3층~지상 최고 22층 12개동 전용 59~84㎡ 총 894세대로 구성된다.

세부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 59㎡A 296세대 △전용 59㎡B 95세대 △전용 74㎡ 41세대 △ 84㎡A 281세대 △84㎡B 101세대 △84㎡C 80세대다. 이 가운데 전용 59㎡ 391세대는 추후 공공지원 민간 임대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 74~84㎡ 503세대는 일반 분양한다.'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가 들어서는 고양 덕은지구는 서울 마곡지구와 마포구 상암동이 맞닿은 입지로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한다. 주변 강변북로 및 제 1·2자유로를 통한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연계한 미디어 복합타운 건립,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개통예정 등의 개발호재까지 예고돼 높은 미래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대곡산, 월드컵공원, 한강공원 등이 가까이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 뛰어난 서울 접근성은 '기본' 개발호재-자연-교육-교통 모두 다(多)갖춘 수도권 신혼주거단지

고양 덕은지구는 총 면적 64만 6,000여㎡(4,815세대 예정) 규모의 도시개발지구로, 서울 핵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우선 동쪽으로는 상암 DMC가, 서남쪽으로는 마곡지구가 인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의 출퇴근 부담 최소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주변 강변북로 및 제1·2 자유로를 이용한 차량 이동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 개발호재도 눈길을 끈다. 고양시는 덕은지구에 옛 국방대 터와 상암 DMC를 연계한 미디어 복합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덕은지구, 국방대터, 상암 DMC가 연결되는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강변북로 및 제2자유로 변에 상업 및 업무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고양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덕은지구가 서울 서부권 직주근접의 배후주거지 기능과 함께 주거와 업무지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도 관심사다.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는 대덕산으로 둘러싸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자랑한다.

또 주변에 노을공원,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등이 가깝게 위치해 풍부한 녹지공간과 문화 및 여가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이어 단지 바로 인근에 중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도보 거리에 조성될 계획이다.

다양한 학군들이 구축되는 만큼, 향후 교육 인프라는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주거편의성을 높인 특화설계도 주목된다.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4Bay 설계(일반 세대 제외)로 실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집 밖에서도 생활가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IoT(사물인터넷)도 적용된다.

한편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의 건본주택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30-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968-9570

고양/김성태 기자

경북도, 지역주도 혁신체계 구축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지역혁신협의회·지원단, 경주서 '균형발전 포럼' 개최 균형위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 활성화 방안 논의해

경북도는 최근 경주 힐튼호텔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지역혁신협의회 균형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지역혁신협의회(회장 김효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20인으로 출범된 법정 위원회로, 지난해 10월 출범·구성되어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규제 자유특구 등 도정 핵심 현안들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기간 도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도 지역혁신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포럼은 균형위 김철 지역혁신과장의 기조강연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

안'을 시작으로 도 혁신지원체계 발전방안에 대해 참석자들끼리 폭넓은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철 과장은 지금까지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해온 지역혁신 관련 사업을 앞으로는 시도가 주도하여 혁신성장 전략(지역혁신성장계획)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 내 산업육성·혁신활동 등을 종합·관리하는 핵심주체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도 협의회가 여러 핵심시책을 성공적으로 심의해 왔으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법정사항 심의 위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 중앙단위 제도개편과 연계하여 지역단위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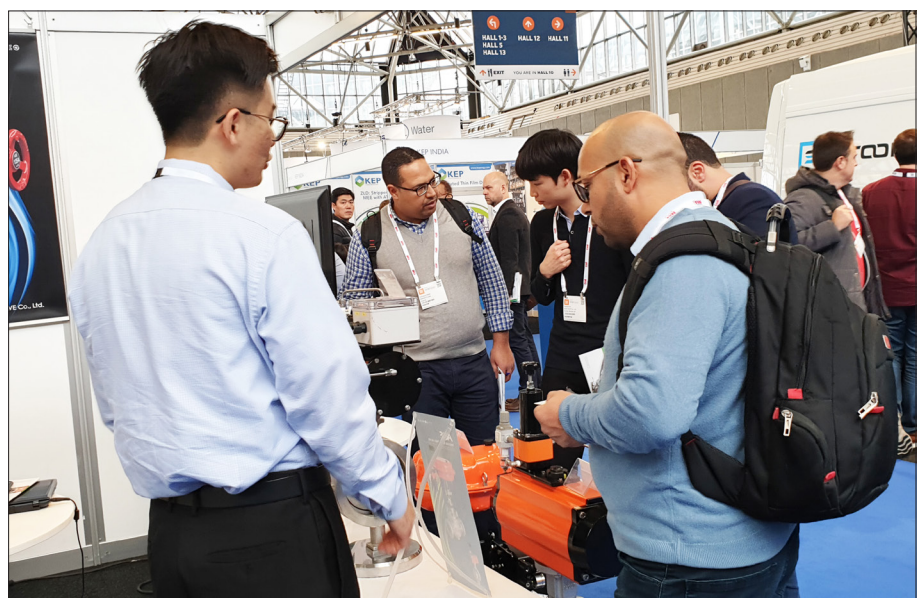
도는 이번 포럼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지역혁신협



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개편할 방침이며, 특히 올 11월부터 각 시도별 주세계문화엑스포를 관람하며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을 현장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지역혁신지원단 김성학 단장(도미래전략기획장)은 "지역단위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이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역혁신협의회가 더욱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북전문대학교 직업

영주시 상행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석류선원 주차장에서 '상행동 문화 등산로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상행동 지역주민, 걷기지도자 및 도움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걷기제초, 걷기 자체 교육 등을 시작으로 석류선원 주차장에서 달본당지산까지 왕복 약 3km의 등산로를 걸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 상행동 문화 등산로 걷기는 일상 속에서 걷기 생활화 실천과 더불어 관내 등산로의 지명 탐구를 통하여 지역 이해도 및 애착심 고취를 하고자 행사를 진행했다. 문화 등산로의 최종 목적지인 달본당지산은 성재(해발 309m)보다 더 높은 해발 321m로, '마을주민들이 이 산에 올라 망위리(=취불놀이)를 하였다'고 하여 '달본당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등산로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 지명유래를 잘 알지 못하며, 관심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걷기대회에 참석한 주민은 "평소 많이 걸던 등산로였지만, 달본당지라는 지명은 처음 들어보았다"며 "지명 유래를 알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걸으니 평소 거닐던 길도 이야기가 담긴 길 같이 느껴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이날 걷기행사에서는 희망 2020 캠페인도 동시에 펼쳐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 참여 주민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였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경북 물기업, 선진 유럽 물산업 시장 진출 '쾌거'



네덜란드 정수수처리 박람회 참여해 2,533만불 수출상담 실적성과 이뤄

경북도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 물산업 전시회(Aquatech Amsterdam 2019)에 참가해 2,533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 참여는 동남아 시장 주도의 마케팅 전략에서 벗어나 선진 유럽 물산업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수출경쟁력이 높은 경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7개사가 수처리 펌프, 필터, 밸브, 맨홀 등 상수도 기자재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정수·수처

리 박람회(Aquatech Amsterdam 2019)는 유럽의 대표 물산업 전시회(방문객 2만명 이상)로 2017년에는 50개국 865개 기업이 참가했다.

유럽은 물산업 분야에서 선진시장으로 상수도 분야에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진 지역이다. 뛰어난 기술성을 가지고 가격면에서 유럽 제품에 비해 다소 저렴한 국내 제품이 시장을 개척한다면 국내 물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물기업들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상수도용 맨홀을 제작하는 ㈜계주철은 뛰어난 내구성 및 조작성의 간편성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1,80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스테인레스 볼 밸브를 생산하는 ㈜부주는 200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하수처리장의 협잡물을 제거하는

스크린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에씨는 기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스크린과의 성능적인 면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어 견적 요청 및 현지 공장 방문을 문의하는 등 175만불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수처리용 펌프를 생산하는 ㈜그린텍과 수처리 설계 시공을 하는 ㈜세원엔지니어링, 밸브를 생산하는 ㈜에이지밸브, 필터를 생산하는 ㈜대진필터 등도 우수한 제품 성능으로 여러 건의 대리점 가능 여부 및 견적 요청을 받는 등 바이어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전시회에 처음 참여한 도내 물기업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현지 바이어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후속협의를 통해 유럽시장으로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물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국제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수출상담지원으로 해외판로 개척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사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물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유럽은 물산업 분야의 선진국으로서 국제 물산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유럽 물산업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지역의 우수한 물기업들이 유럽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영주시, '문화등산로 함께 걸어요'

영주시 상행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석류선원 주차장에서 '상행동 문화 등산로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상행동 지역주민, 걷기지도자 및 도움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걷기제초, 걷기 자체 교육 등을 시작으로 석류선원 주차장에서 달본당지산까지 왕복 약 3km의 등산로를 걸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 상행동 문화 등산로 걷기는 일상 속에서 걷기 생활화 실천과 더불어 관내 등산로의 지명 탐구를 통하여 지역 이해도 및 애착심 고취를 하고자 행사를 진행했다.

문화 등산로의 최종 목적지인 달본당지산은 성재(해발 309m)보다 더 높은 해발 321m로, '마을주민들이 이 산에 올라 망위리(=취불놀이)를 하였다'고 하여 '달본당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등산로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 지명유래를 잘 알지 못하며, 관심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걷기대회에 참석한 주민은 "평소 많이 걸던 등산로였지만, 달본당지라는 지명은 처음 들어보았다"며 "지명 유래를 알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걸으니 평소 거닐던 길도 이야기가 담긴 길 같이 느껴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이 날 걷기행사에서는 희망 2020 캠페인도 동시에 펼쳐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 참여 주민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였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영주/정승초 기자

영주적십자병원, '투석 혈관접근로의 관리'

경북 북부지역민 건강증진 도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위해

영주적십자병원은 최근 병원 3층 앙리뒤낭홀에서 경북 북부 지역 내 의료인 및 간호대학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건강강좌 '투석 혈관접근로의 관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건강강좌는 지역 내 유일의 신장내과 전문의인 현진남 영주적십자병원 내과 과장이 지역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혈관 접근로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학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혈액 투석환자들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관접근로는 신장 기능이 상실된 환자의 몸과 혈액투석기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이 때문에 혈액 투석 환자에게 있어 혈관접근로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협착이나 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의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건강강좌에 참석한 동양대학교 및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진들은 "그동안 실제 임상현장과 진료현장에서 활용될 만한 수준 높은 강의가 지역 내 전무하였

는데, 이번 건강강좌가 양질의 의학 정보를 공유하는 장(場)을 마련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내 유일의 종합병원이자 공공병원인 영주적십자병원이 이러한 역할을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강좌 진행을 맡은 현진남 영주적십자병원 신장내과 과장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 교육기관 간 교육연계를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뜻 깊은 자리에 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신장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을 위한 강좌를 개최해 모든 지역민들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건강 알리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적십자병원 인공신장실은 최첨단 FMC 5008 인공 투석장비 구축과 지역 유일의 신장내과 전문의가 응급상황을 대비해 중증환자에게 24시간 연속혈액에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며 전해질균형을 보정하는 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 지속적 신장치환법)를 도입해 지역 내 신장질환 환우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주/정승초 기자

경북교육청, 건강증진·소통의 장 마련



직원 사기 진작 및 소통, 화합 15개부서 참가, 탁구대회 성료

경북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청 체력 단련실에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사기 진작, 소통·화합을 위한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0월말 한 달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교육청 15개 부서가 부서 대항전으로 진행했으며 교육감과 행정국장 등 총무과, 부교육감은 소통 협력관, 교육국장 등 교육복지과 소속 선수로 출전해 직원들과 함께 경기를

펼쳐 직원 간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 경기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전과 혼성복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결승 경기는 정책기획관과 체육건강과가 경기를 펼쳐 체육건강과가 우세를 차지해 삼공과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탁구대회는 직원간 소통뿐 아니라 직원들의 고단한 심신과 업무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내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북교육청, 과테말라공화국 교육가족 초대

교원 20명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
우수한 교육정보화 노하우 전수해

경북교육청은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2일간 중미의 교류협력국 과테말라공화국 교원 20명을 초청해 대구경북영어마을과 경북일원에서 교육정보화 연수를 한다.

이번 연수는 경북교육의 우수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경북교육, 교육정보화 소개, ICT 활용 연수와 콘텐츠 활용 중심 연수 등 정보화 연수와 한국어 따라하기, 대한민국 소개 등 문화이해 교육, ICT 선도 기관과 학교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또한, 우리 문화 이해를 위해 안동 하회마을, 경주 불국사 등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ICT 선도 기관과 학교 방문에는 양국 교사 간 정보 교육에 대한 교류의 시간도 가진다.

교류협력국 정보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사업으로 우리나라가 OECD가입 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공적개발 협력사업(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중 한 분야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교류협력국으로 과테말라공화국을 지정해 ICT 선도 국가로서 인프라(컴퓨터) 지원과 교환초청연수, 선도교사 단계별 등을 실시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올해까지 14년간 이렇듯 인프라 구축용 컴퓨터 2,070대 지원했고 교원 254명을 초청해 정보화 교육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전직적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과테말라공화국 지원단이 현지 교환연수와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업무 협의를 가진바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경북의 우수한 교육정보화 노하우 전수를 물론 양국 간 상호 협력과 친선 도모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직적 부교육감은 "이번 초청 연수가 ICT 강국으로서 교육정보화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진 기술을 전수해 양국 간 우호증진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테말라를 이끌어갈 연수단 선생님들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디지털교과서 활성화로 교실 수업개선

경북교육청은 최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초·중·고 학교장 50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스마트 교육 연수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18학년도부터 보급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모형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습 지원과 관리 기능이 부가되고 외부 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로 기존 교과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과 보충·심화 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 자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디지털교과서는 풍부한 학습 자료, 실감형 콘텐츠, 학습 커뮤니티 활용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연수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더불어 최근 확대 보급되고 있는 무

선인프라 활용을 위한 스마트교육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디지털교과서 원활한 사용을 위해 무선공유기와 태블릿PC 등 무선인프라 환경 구축을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다.

올해 초·중 400에 60억원 예산으로 무선인프라를 보급했고 내년에는 도내 모든 초·중에 교당 무선공유기 4개와 태블릿PC 60대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9일에는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초·중·고 학교장 50여명을 대상으로 2차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스마트 교육 연수를 할 계획이다.

신동식 창의인재과장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봉화군, 사회적 가족만들기 프로젝트 행사

경북전문대학교 작업치료과 학생들이
일촌맺기 행사로 '치매보듬가족' 형성



봉화군은 최근 동양리 마을회관에서 '치매보듬가족' 사회적 가족만들기(일명 일촌맺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북전문대학교 작업

치료과 학생들이 참여해 치매보듬마을을 어르신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듬가족 25팀이 만들어졌다.

치매보듬마을을 사회적 가족 만들기는 봉화군, 경북전문대학교, 경북도, 경북도광역치매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로 '치매보듬가족'이 된 대학생들은 일촌을 맺은 어르신의 안부를 챙기며, 일상의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인지자극과 정서적지지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주민 전체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군민 모두에게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봉화/정승초 기자

찾아가는 경남1번가 '다문화가족 정책포럼 토크톡'

창원대학교 사립관서 다문화가족 등 150여 명 참석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경남 만드는 정책 공론의 장

경남도 '찾아가는 경남1번가'가 도민과 다문화가족간의 공감을 확대하고 체감하는 다문화 정책발굴을 위해 올해 4번째 행사로 다문화 분야 정책토론회를 창원대학교 사립관서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남도와 창원대학교, 씨제이(CJ)헬로 경남방송, 경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했으며, 도내 다문화가족, 창원대학교 학생,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영상인사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경남도는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지만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검토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겠다"면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고 다문화가족을 응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성인의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주제로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경남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포럼 형식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승해경 경남도 다문화지원센터장의 '경남도의 다문화지원 활동 소개'에 이어 결혼이주여성과 김경영 경남도위원의 사례발표, 다문화가족 공감대를 위한 정책제안 패널 토크와 참여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패널 토크에는 도내 다문화가족 대표 5명이 참여하여,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경남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에서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이주여성 일자리, 다문화자녀 양육과 교육 등 다양한 이슈에 열띤 토론과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부대행사로 결혼이민자 출신국가 노래 맞추기, 다문화 공감 퀴즈, 다문화가족팀 공연도 펼쳐져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 문화의 차이를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이날 다문화 공감 토크에 패널로 참석한 다문화가족 진소홍씨는 "경



남도에서 다문화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도민과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동받았다"며, "앞으로 경남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해 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오늘 다문화가족과 도민, 행정의 협업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들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씩 실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경남도는 더욱 다양한 도민

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남1번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30일 경남도 대표 온라인 정책제안플랫폼인 경남1번가(www.gyeong.go.kr/gn1st) 개통했다. 경남1번가는 정책제안부터 토론과 투표, 실행의 전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본인이 제안한 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오거돈 "한·아세안 동반관계 구축합시다!"



림 족 호이 사무총장과 오찬간담회서 아세안과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의건

부산시는 림 족 호이 아세안사무국 사무총장 등 아세안사무국 관계자 10명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해운대구 개라다이스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림 족 호이 사무총장에게 "부산과 아세안은 오래전부터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아세안 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등에 대해 사무총장께서 부산과의 협력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 시장은 한·아세안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정상회의의 후속 사업인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한-아세안 영화기구(ARFO) 설립'을 건의했으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을 더욱 공고해지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동행, 평화와 번영(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이라는 슬로건 아래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됐다. 이어 11월 27일에는 '2019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 벡스코 및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일원에서 열린다.

부산/최만식 기자

경남도, 청년 취·창업 직접 챙긴다

'내 삶과 가까운 효용가치 정책' 청년 푸드트럭에 레시피 공개해



경남도가 하반기 채용을 앞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도내 대학에 직접 찾아가는

경남도는 지난 25일 경상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4개 대학교에서 릴레

이 토코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남도의 청년정책들을 소개하고, 청년들이 가지는 취·창업의 어려움에 대해 조언을 하는 자리로 '경남청년,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행사는 메인 행사와 부대 행사로 나누어지며, 메인 행사에는 국내 유명 창업가와 유명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강연으로, 부대 행사에는 국내 유명 셰프와 유튜브가 참여하는 볼거리 제공으로 꾸며진다.

또한 경남도, 청년온나, 경남도 일자리프렌즈, 케이티앤지(KT&G), 농협은행, 경남은행이 16개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참여 거리와 도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푸드트럭 창업가들이 여러 가지 먹거리를 선보인다.

창업 멘토로는 김병관 국회의원(전 웹젠이사회 의장), 양향자 전(前) 국가개발원 인재개발원장(삼성전자 첫 고졸 임원), 유정수 글로벌 서울 대표 등이 나서고 경남은행, 농협, 카이, 센트럴, 엘지(LG),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등 유명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채용관련 꿀팁을 알려준다.

부대행사에는 '냉장고를 부탁해'로 유명한 이원일 셰프, 정지선 셰프와 18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고도경, 강백수 시인이 참여한다. 특히 이원일, 정지선 셰프는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 푸드트럭 창업가를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과 함께 주요 레시피를 공개하기로 했다.

참여 부스에는 타로카드로 적성 찾기, 고민 상담, 에이아이(AI)면접 체험, 면접정장 입어보고 인생샷 촬영, 같은 대학 출신 공무원과 대화, 작은 취업 박람회, 청년정책 만들기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거리로 채워질 예정이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우리 도는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인데, 모든 청년에게 좋은 결과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일정상 11월 25일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의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거제시꿈드림 문화체험 '소풍'



거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 '소중한 나의 풍경'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동래 소재 더 히든에서 방탈출 체험과 벨로 캔들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나만의 캔들 만들기, 북구문화빙상장에서 아이스스케이팅 체험을 했다.

문화체험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고 또래친구들과 함께하며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됐다.

거제/최만식 기자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미래 '첫 삽'

국가시범도시 착공식... 본격 추진 백지부지에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부산시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전망대 인근에서 '스마트도시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거돈 부산시장 등 정부 관계자와 부산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 '소중한 나의 풍경'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동래 소재 더 히든에서 방탈출 체험과 벨로 캔들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나만의 캔들 만들기, 북구문화빙상장에서 아이스스케이팅 체험을 했다.

문화체험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고 또래친구들과 함께하며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됐다.

국가시범도시 착공식... 본격 추진 백지부지에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부산시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전망대 인근에서 '스마트도시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거돈 부산시장 등 정부 관계자와 부산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 '소중한 나의 풍경'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체험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고 또래친구들과 함께하며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됐다.

부산/최만식 기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천년왕도

경주

남산지구

대릉원지구

산성지구

월성지구

황룡사지구

소통하는 의정, 시민중심의 의회

"경주시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http://gicouncil.or.kr

석굴암

해남군, 내년 예산 7,395억... 일반 7,158억, 특별 237억

전년대비 10.1% 증가, 민선7기 비전 가시적 성과 '차곡차곡' 실행예산 최대한 편성 적기 재정지출, 재정구조 강화나서

해남군이 2020년 군 예산 7,395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7,158억 원, 특별회계는 237억 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6,718억 원보다 677억 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민선 7기 비전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출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군민들이 예산투입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행예산을 최대한 편성함으로써 적기에 재정을 지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데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해남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먹는물 공급사업과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신축, 군립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보훈회관·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군민 행복지수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들에 선제적 투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예산의 32%, 2,359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225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94

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78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추진 67억 원 등 농어가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수산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는 1,782억 원으로 기초연금 606억 원을 비롯해 땅끝가족어울림센터 42억 원, 아동수당 38억 원, 노인일자리아사업 60억 원, 보훈회관 신축 25억 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신축 10억 원 등 세대별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다.

체류하는 문화관광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우수영 정비사업 75억 원, 제2스포츠센터 조성 37억 원, 세계의 땅끝공원 12억 원, 해남야구장 건립 11억 원, 우슬베드민턴장 건립 10억 원 등 5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50억 원, 제3매립 시설 확충사업 18억 원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보호분야 496억 원,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6억 원, 남외 공영주차장 조성 22억 원, 문내 우수영권역 권역단위종합개발 21억 원 등 SOC확충 및 지역개발분야에 821억 원을 편성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20년도 해남군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편성했다"며 "민선7기 해남의 미래 동력사업 추진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해남/강원호 기자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28일부터 판매

판매대행 10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농민공익수당·일반판매분 등 50억 원

장흥군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28일부터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상품권 판매와 환전업무를 대행할 10개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화폐 유통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정중순 군수와 농협장흥군지부, 광주은행, 축협, 새마을금고, 6개 지역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기관 대표들은 상품권 판매와 환전, 관리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판매대행기관 공개 모집을 통해 10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상품권 유통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과 전산교육 등의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700여개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집을 통해 2,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은 50억 원 규모로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등 4종으로 발행된다.

오는 28일부터 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장흥군 내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중순 군수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 지역 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중·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장길 기자

담양군 청춘마을, 좋은이웃 밝은동네 '버금상'

지자체 무월마을 이어 연속 수상 주민들 소통과 단합 이끌어 영예

담양군의 가사문화면 청춘마을이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식에서 밝은동네 부문 버금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담양군은 2018년에도 무월마을이 밝은동네 버금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도 밝은동네 부문을 수상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6회 째를 맞는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은 광주방송문화재단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공동 주관해 행복하고 희망찬 지역 만들기에 앞장선 동네를 발굴하고 건전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시상식이다.

밝은동네 버금상을 수상한 청춘마을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쇠퇴해가는 마을을 살리고자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며 더불어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했다.

또한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품물교실 및 합창단을 운영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어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밝은 동네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춘마을을 대표해 수상한 김종욱 이장은 "주민들과 함께한 성과로 이렇게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로 단합해 밝은동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오홍근 기자

무안군 2019년 평생학습축제 성황리 개최



문해교실 어르신 등 250여명 참여한 한 해 성과 결산하는 자리 마련

무안군은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및 전시장에서 문해교실 어르신 등 평생학습단체 회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무안군 평생학습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인한글교실 8개 팀 및 학습동아리·단체가 참가해 '배움을 나누고 나눔을 배우는 평생 학습도시, 무안'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결산하는 자리가 됐다.

올해는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실력을 알아보는 성인문해 팔든벨을 처음으로 개최해 늦깎이 교육생들의 불꽃 튀는 한글 대결

을 펼쳐보는 이로 해금 성원의 박수가 절로 나오게 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평균 연령 70세 이상으로 사회적인 환경,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했거나 공부할 기회를 놓쳐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며 이번 축제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문해 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산 무안군수는 "지난 일 년 간 꾸준히 학습의 길을 걸어오신 어르신들과 수강생 여러분의 노고와 의지에 큰 박수를 보내며 배움에서 끝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행복한 무안 만들기에 동참하신 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안/조기석 기자

영광군, 청년사업자 창업지원 신용보증상품 인기

업체당 창업자금 3천만 원 한도내 창업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영광군은 담보력이 미약해서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성공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사업자 창업지원 신용보증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만 18세에서 45세 미만 관내 거주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담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단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업체당 창업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8개 업체에서 9억6,000만 원 신용보증 실적이 이루어져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성 군수는 "앞으로도 창업

영광군 청년사업자 특별보증

- 보증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신용보증, 30만 원 이상 신용보증, 30만 원 이상 신용보증
- 보증조건: 1. 신용보증, 2. 신용보증, 3. 신용보증
- 지원 연내: 2019. 11. 21(목) ~ 2020. 11. 30(수)까지
- 문의처: 061-353-7401~2

을 희망하는 우리지역 청년들이 더 많은 창업의 기회를 얻고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광/김영만 기자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남원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30개를 12월 말까지 설치해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하고 불법 현수막 게시 요인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에 해당 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고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한 대부분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법률에 맞지 않는 불법 현수막이고 이러한 현수막이 불법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남원시에는 119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수막 게시요금을 소화하지 못해 가로수, 가로등 기둥, 담장 등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함으로써 광고주의 계층을 위한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법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시민들로 해금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유도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이남출 기자

장애인 행복 나눔터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개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49억 원 투입 1,135㎡ 규모, 우산공원 남쪽에 조성

영광군은 지역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기념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이계호 국회의원, 김준성 영광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장애인 관련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 컷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김준성 군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은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동 1,135㎡ 규모로 영광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는 우산공원 남쪽 자락에 조성됐으며 예산 중 10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군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영광을 대신하기에 있던 기존 장애인복지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 장애물 없는 환경과 넓은 주차공간을 조성했다.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은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인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 아카데미, 수어통역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의 이



용시설과 장애인 토크쇼,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 체육회 등이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리군의 장애인복지의지와 미래전략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장애인의 화합의 상징인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군민이 장애인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장애인복지 1등 군으로 도약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영만 기자

강진군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전년대비 40% 상승



로컬푸드 직매장 성공적 정착... 104억 원 매출 달성 10월 현재 참여 농어업인 수가 473명으로 크게 증가

강진군 농특산물 직거래지원센터 매출이 매년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처음 224명 농어업인의 참여로 시작한 강진군 농특산물 직거래지원센터는 2019년 10월 기준 현재 참여 농어업인 수가 473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104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

액 140%을 초과달성해 올해 최고의 판매량을 올리는 등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7월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안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인 정착과 2019년부터 도입한 고정고객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7월 20일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임시로 개장하고 본격적인 직거래판매를 시작했다. 54평 규모의 삼인삼 형태로 시작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는 240농가가 출하하는 34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매출 또한 4개월 간 4억원을 올리면서 강진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소비자 간의 유통과정을 최소화해 그동안 판매에 불리했던 소규모 작물 재배농가에 큰 도

움이 되는 등 실질적인 농어업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군은 농특산물 직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한 택배 고객을 지역·구입·품목 등으로 정리 및 분류해 현재 7만 9천명에 이르는 D/B를 구축하고 있다. 구축한 정보를 토대로 강진군 농특산물 홍보나 특산물 구입에 따른 감사 서한문 발송에 적극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 및 재구매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9년에는 농특산물 직거래지원센터 참여농어업인 500농가, 고정고객 8만5천명, 13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방선 유통팀장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강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농어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고 군에서도 체계적인 고정고객 D/B 관리를 통해 직거래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고객관리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강진군 직거래 판매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효관 기자

보성군, 청정 읍어면 자매도시 성북동 방문

밤·녹차·고춧가루·도라지·조청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 열어서 '호응'

보성군 읍어면은 최근 서울 한성대 분수마루 광장에서 자매도시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17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읍어면이 두 지역의 우의를 다지고 청정지역 읍어면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성농민들이 정성들여 재배한 밤, 녹차, 고춧가루, 도라지, 조청 등 품질 좋은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서울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특히 이번 특판행사는 읍어출신 임태근 성북구 의회의장을 비롯

한 성북구·보성군 직원들과 읍어면민회를 참여로 자매도시 주민들과 어울림의 계기가 됐다.

읍어면 임영철 면장은 “함께해 주신 성북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추운 날씨에도 행복 충전의 계기가 됐다”고 웃음꽃을 피웠다.

성북동 안구성 동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정 보성의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 하고 안심 먹거리를 제공해 주민들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읍어면 임영철 면장은 “도·농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상호방문 등 공동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영안 국장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결과보고회



박람회 성과·반성 등 다양한 논의 기업유치, 일자리창출로 이어져야

영광군은 최근 영광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6일부터 5일 동안 펼쳐진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에 대한 외부 평가용역 결과 보고 및 엑스포 성과 반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강영구 부군수를 비롯한 엑스포 조직위원, 영광군의회 의원, 전라남도,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박람회 성과 및 반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고회는 엑스포 기록 영상 시청, 성과 및 결과보고 엑스포 평가용역 보고 토론 및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평가용역 발표자로 나선 김정태 교수는 “작년 대비 관람객·참여기업

모두 한층 향상된 행사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으며 프로그램 전반이 질적·양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주 동선에서 벗어난 일부 프로그램이 관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과 로봇코딩캠프, 자동차 경주대회 등의 연중 개최를 통한 장기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난 5년간 e-모빌리티 산업에 선조적인 투자를 통해 영광이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서 이미지를 선점했으며 엑스포가 그러한 위상에 발점을 찍는 행사였다는 의견을 모았다. 향후 기업유치, 일자리창출로 이어져 영광군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다각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주문도 있었다.

강영구 영광부군수는 “영광군은 이번 엑스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차세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에는 엑스포 행사를 더욱더 탄탄하게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영안 기자

담양,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 운영



담양군이 최근 다문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육아용품 나눔장터'를 25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터는 다문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 장난감, 의류, 신발 등 물품 300여 점을 기증받아 장터를 운영했으며 영유아 영양교육, 구강보건교육 등을 진행해 유익한 육아 정보 공유와 함께 참여자간의 소통 시간도 마련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나눔장터를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건전한 소비문화와 자원재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출산·육아용품 기증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증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오홍근 기자

구례군장애인복지관, 공감과 소통 '하나되는 힐링여행'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진행한 가족 되어 뜻깊은 여행 기획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충남 부여군, 예산군, 전북 임실군을 여행하는 '2019년도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역사문화·자연탐방을 통해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애 가정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나들이 기회가 적고 가족은 장애의 보살핌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현실이다.

이번 '공감과 치유 탐방'은 장애인과 가족, 10대에서 80대까지 연령층을 다양하게 선정해 함께 가는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 되어 뜻깊은 여행이 되도록 기획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 부부가 부소산성과 낙화암의 단풍길을 걷고 서로의 투박한 손을 꼭 잡고 황포돛대 유람선에 오르는 걸 도와주며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는 모습에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행사 둘째 날 레크리에이션은 부여군의 자원봉사자 부부가 진행했다. 이 부부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부인이 간질장애를 겪으면서 25년의 직장생활과 두 아이 엄마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례를 발표하며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고 남편의 흥겨운 색소폰 공연으로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됐다.

두 아들과 함께 참여한 지체장애인 임모씨는 “구례에서 보기 힘든 사과파기와 사과파이 만들기 등 여행 일정 동안 내내 즐거워하는 두 아들

을 보며 백제문화를 볼 수 있는 부여의 체험학습 나들이 기회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충남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태영 관장은 “바쁘게 살아온 80대 노년의 부부가 손을 잡아주고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장애인과 가족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는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영만 기자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농어촌

KFP 한국농어촌공사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광명, 동네 곳곳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펼쳐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 위해 팔 걷어 부쳐 각 동 행정복지센터서 릴레이로 김장김치 담가 전달



경기 광명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돼줄 김장 담그기 행사를 분주했다. 김장 담그기 행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각 동 유관단체원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다. 광명1동은 정성을 다해 담근 김치를 경로당, 홀몸어르신 및 장애인 등 총 130여 가구에 전달했다. 광명4동은 배추 약 720포기와 각종 양념을 직접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 김치를, 기초수급자를 비롯해 홀몸어르신들과 저소득 장애인 세대 등 총 150여 가구와, 경로당 3곳에 전달하여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을 나누었다. 광명5동은 새마을 회원들을 비롯한 관내 10개 단체원이 정성을 다해 한마을 한뜻으로 참여했으며 김장김치는 저소득층 120여 가구에

전달했다. 광명6동은 배추 740포기 김장을 담가 관내 취약계층 150가구와 경로당 6개소에 전달했다. 광명7동은 수급자, 저소득,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경로당 등 총 100세대에 전달했다. 철산2동은 배추 650포기로 김장을 담가 저소득층 및 경로당 등 150여 세대에 전달했다. 하안1동에서는 광명동부새마을금고와 하안1동 소속 9개 단체의 후원으로 김장을 담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등 110가구에 전달했다. 소하1동은 지난 10월 일일차집을 운영한 기금으로 김치 나눔행사를 마려했다. 이날 직접 담근 김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경로당 등 저소득 취약계층 135가구에 10kg씩 전달했다. 소하2동은 650여 포기 배추로 김치를 담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총 100가구와 관내 21개 경로당에 전달했다. 광명/김영선·박종철 기자

평택, 홀몸 어르신 생일잔치 마련

경기 평택시 서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중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 10가구를 선정해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가 없거나 도움받기 힘들어 생일상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보고 생일잔치를 열어드리면서 생일 축하와 말벗 등을 통해 외롭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소외감을 덜어드리고자 마련했다. 생일잔치를 위해 서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서정동방위협의회 위원들은 함께 준비한 케이크와 선물 꾸러미를 어르신께 전달해드리고 생일축하노래와 잠시나마 담소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생일상을 받은 어르신은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이렇게 찾아와주니 너무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명숙 민간위원장은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자 서정동장은 “홀몸 어르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양한 소외계층이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행복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이동원 기자

광주시노인복지관, 따뜻한 손길 전하는 사랑

이마트광주점과 김장나눔 행사까지 홀몸어르신 120명에 김장김치 전달

경기광주시노인복지관은 이마트 경기광주점과 지난 21일 ‘따뜻한 손길로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마트 경기광주점의 후원과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지역 내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각 10kg씩 포장해 어르신 120명에게 전달했다. 이마트 경기광주점 이상준 점장은 “겨울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며 “작

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복 관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마트경기 광주점 임직원과 복지관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외부자원과의 지속적인 연계망을 구축해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 향상에 앞장설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근학 기자



용인시, 취약계층에 사랑의 온정 잇따라

새마을부녀회서 사랑나눔 김장 행사 용인라인온스클럽서 김치 45통 기탁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은 최근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사랑나눔 김장 행사’가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읍 새마을부녀회원과 새마을지도자 등 50여 명은 이틀에 걸쳐 1300포기의 배추와 무를 다듬고 절여 김치를 담갔다. 이 김장김치는 22일 관내 홀로어르신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경로당에 전달됐다. 이번 김장에 사용한 400만 원 상당의 배추는 이동읍 농촌지도자회가 기부했다. 이진숙 이동읍 새마을부녀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행사에 도움을 주고 참여한 각 단체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처인구 역삼동은 22일 용인라인온스클럽에서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8kg들이 45통과 10kg 쌀 30포를 관내 홀로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했다고 밝혔다. 용인라인온스클럽은 지난해도 역삼동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김치를 기탁한 바 있다. 용인라인온스클럽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즐겁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안성고등학교,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 사랑 나눔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포기 전달 특수학습학생들 나눔과 배려 기회

경기 안성고등학교는 최근 겨울 김장철을 맞아 안성맞춤자활센터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기증하는 ‘안성고등학교 사랑 나눔 활동 김장김치 전달식’을 안성고등학교에서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성고등학교 이세형 교장, 이진수 교감과 교직원, 학생을 비롯하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심상원 센터장 이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30포기를 전달하였다.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자립을 위한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0년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안성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 복지기관이다. 안성고등학교와 안성맞춤지역자

활센터는 ‘안성-평택 통합형 직업교육거점’ 현장실습 협약서 체결로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실습 장소를 제공하며 일반 시장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협업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제공도 함께하고 있다. 이날 기증된 김장김치는 안성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직접 농사지은 배추와 무를 포함, 지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배추로 특수학급 전체 학생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안성고등학교 특수학급은 매년마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안성고등학교 사랑 나눔 활동 김장김치 전달식’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나눔과 배려에 대해 직접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안성고등학교 이세형 교장은 “내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여 많은 배추를 수확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 나눔을 통해 배려와 사랑을 실천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성/남시현 기자

영·호남 교류 20주년 ‘장흥 쌀 팔아주기’

부산 새마을회와 다양한 교류 이어져 장흥 쌀 소비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전남 장흥군은 최근 정남진농협 RPC에서 장흥군 새마을회와 부산 영도구 새마을회와 ‘장흥 쌀 팔아주기’ 행사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 새정무(전남6호) 쌀 20kg 4,350가마가 판매돼 2억6,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다. 장흥군 새마을회와 부산 영도구 새마을회는 지난 1998년 동서화합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었다. 장흥/김정걸 기자

그동안 문화, 예술, 체육,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수련대회를 통해 새마을 지도자 간 각별한 우의를 나누고 있다. 올해는 장흥군과 영도구의 자매결연 인연을 맺은 지 20년째가 됐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장흥군과 부산 영도구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걸 기자

지역소식

포천, 백령면에 사랑의 간식 전달



경기 포천시 소재 강동퓨어푸드가 최근 옹진군 백령면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간식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진수 대표는 “어르신들이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탓에 외출이 힘들

어 실내 생활을 주로 할 듯 싶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간식을 드시며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즉석용 떡국과 떡국떡, 누룽지, 밀 떡볶이 등의 물품이 담긴 10kg의 간식박스 75개를 전달했다. 윤진수 대표는 “앞으로 포천시에 위치한 타 음식제조공장과 연계해 자원봉사센터 백령지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백령도의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해 적극 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김영근 기자

평택,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경기 평택시 청북읍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새마을지도자청북읍협의회가 손수 키운 배추로 김장김치를 만들어 관내 저소득 100세대에 ‘사랑



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유순 총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한마을 한 뜻으로 매년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되며 대상자들이 부녀회 김치를 드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기 청북읍장은 “매년 추운 날씨에도 새마을부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과 청북읍 단체들의 참여로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를 관내 저소득

층에 전달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평택/이동원 기자

파주 어울림밤상에 어울림 김장날

경기 파주시 운정3동은 최근 운정3동장 동장, 순배찬 파주시시장, 월드건설(주)(대표이사 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영세), 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밤상 김장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19년 4차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지난 달 김장나눔 봉사활동 사전회의 진행했으며 김장 맛있게 담는법, 공동체 및 자원봉사교육 선진화 후 이날 김장을 담갔다. 특히 월드건설(주)가 김장통을 지원해 당초 계획보다 30가구가 늘어 총 150가구에 김장을 전달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키즈팜어린이집, 양주시에 플리마켓 수익금 기부

장터 운영으로 얻은 72만여 원 관내 취약계층 위해 배부될 예정

경기 양주시는 만송동에 위치한 키즈팜어린이집에서 양주시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71만7,500원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성금은 어린이집에서 플리마켓 장터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홍운 문화복지국장, 키즈팜어린이집 원장, 담당교사 및 학부모 대표와 4~7세 영유아 7명,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기부받은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홍운 복지문화국장은

“영유아들이 플리마켓을 통해 얻은 소중한 판매수익금을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면서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의미 있는 성금이기에 꼭 필요한 이웃들에 제대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안성 ‘청림탐블러 나눔 행사’ 실시



경기 안성시는 최근 생활 속 청림의식을 함양하고 친환경적 사무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림 탐블러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민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청림의식을 더욱 확

고히 만들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하고 아름다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탐블러에는 누구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톡톡 튀는 청림문구를 새겨, 공직자들이 업무시간에 사용하면 청림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 탐블러 사용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나눔 행사를 통해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 및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실천을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디어가 넘치는 다양한 청림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청렴한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남시현 기자

빛으로 재탄생 장욱진 예술,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수놓다

장욱진 오마주 미디어파사드, 특별기획전 양주팔괴서 최초 선봬 한국근현대 미술 대표하는 8명 작가들 한곳에서 만날 수 있어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 장욱진 화백의 예술이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빛으로 재탄생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2019년 마지막 특별기획전으로 '양주팔괴(楊州八怪)전'을 2020년 2월 9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10월 1일 막을 올린 이번 전시는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며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8명의 작가, 장욱진, 민복진, 김구립, 조성묵, 권순철, 신상호, 박영남, 조 환의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 20점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장욱진 오마주 미디어파사드 '빛의 방'이다. '빛의 방'에서는 장욱진의 작품을

프로젝션 맵핑기법으로 새롭게 구현, 10대의 프로젝터를 통해 천장과 바닥을 비롯한 전시장 전면을 장엄하게 채운다.

영상속에는 장욱진의 작품에 등장하는 집, 가족, 동물, 나무 등의 소재들이 서로 대화하듯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장중한 서라운드 배경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빛의 향연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장욱진의 예술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조현영 관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장욱진의 예술세계에 보다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주팔괴'에서 지칭하는 8명

의 작가들은 '괴(怪)'라고 불릴 만큼 사회의 기존 형식의 틀이나 가치관 혹은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추구한 예술가이다.

이들은 외형적인 특이함이 아닌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독특한 예술세계를 펼치며 각자의 영역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쳐왔다.

장욱진을 비롯한 양주팔괴의 괴이함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즉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예술이 가지는 본연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양주팔괴'의 작품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한 포스터와 포토존, 인터뷰 영상 등도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장욱진 화백을 비롯한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8명의 작가들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은 분들에게 소중한 순간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용인시 농산물 가공제품 특별기획전 열려

내달 1일까지 롯데백화점 일산점서 가공·포장한 상품 80여 종을 선보여

경기 용인시는 오는 12월 1일까지 롯데백화점 일산점 3층 시그니처 스테이지 팝업존에서 관내 농산물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특별기획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관내 가공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시와 롯데백화점 일산점이 함께 마련한 행사로 용인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포장한 상품 80여 종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올해 농식품창업콘테스트 결선에 진출한 새암농장의 목이버섯 뮤지리와 피클, 초담초담의 오디식초, 농부드림의

쌀·도라지·고구마 초청, 용인정정팍의 블루베리 잼·차, 몸신 안승재의 벌꿀·매실청 스틱 등이 있다.

또 감각적인 포장으로 젊은층에도 인기가 있는 잡곡스틱 '미미한 봉', '미미셰이크'도 만날 수 있다.

행사장에선 가공제품 시음·시식을 하며 용인 백옥쌀로 만든 떡 나뭇 등의 이벤트도 열린다. 5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는 용인시 농산물 가공제품 브랜드인 '용인의 소반' 딸기잼을 증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관내 로컬제품과 가공상품들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파주장단콩축제 성료... 인산인해 이뤄

수입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양한 농특산물 조기 매진되기도

경기 파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파주임진각 광장 및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린 제23회 파주 장단콩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가을과 같은 따뜻한 날씨 속에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한 줄기 햇살 같은 역할을 했다.

공연행사가 취소됐음에도 많은 인파가 축제장을 찾아 한수위 쌀을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이 조기 매진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파주장단콩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으며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장단콩을 이용한 즉석 두부 판매와 파주 농특산물로 만든 개발요리, 향토음식부스의 먹거리 등을 통해 먹는 즐거움도 선사했다.

특히, 국내 콩 전문가들이 모여 개최한 '파주장단콩 포럼'을 통해 콩 가공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모색했으며 파주장단콩 전국요리 경연대회는 요리사들의 요리솜씨와 시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파주시는 이번 제23회 파주장단콩 축제를 찾는 방문객은 약 19만 6천 명, 콩 판매량은 110톤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장단콩과 각종 농산물 등을 포함해 총 33억 2천만 원의 직접 판매 수입을 올리는 등 파주농업인들의 수입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3일간의 축제의 막을 내렸다.

파주/김성태 기자

장흥고, 음악·행복 감동 속으로

장흥고등학교 관악 오케스트라는 최근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6회 장흥 학생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에 참가하여 열띤 공연을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장흥고 관악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번 공연에서 'I want to hold your hand'와 'Sing Sing Sing' 등 총 두 곡을 연주했다.

평소 관현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구성된 장흥고 관악 오케스트라 단원 18명은 이번 공연을 위해 동아리 활동 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다. 그 결과 학생답지 않은 훌륭하고 세련된 연주로 많은 관객들로 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 참가한 2학년 구OO 학생은 "공부에 지칠 때마다 음악을 연주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다. 오케스트라는 다른 친구들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주가 잘 이루어졌을 때 혼자 하는 연주와는 다른 짜릿함이 있다. 우리 연주를 듣고 많은 관객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어 고생한 보람을 느꼈다."고 연주 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흥고는 일반계 고등학교임에도 학생들의 예술과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형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벽화그리기, 생태농장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관현악 동아리 연주회 등을 통해 재능기부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장흥/안광철 기자

이천에서 굴도 따고, 만들기 체험도 즐기자

겨울철 이색 이천여행 코스 소개
하늘빛 농원·공예체험장 마실 인기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계절이 왔다. 겨울철에는 실내체험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춥다고 꼭 실내에서만 머무르기에는 아까운 이천의 여행코스가 있다. 바로 굴 농장인 하늘빛농원과 공예체험장인 마실이다.

△ 경기도 내륙지방 최초의 굴하라봉 재배농가 - 하늘빛농원

이천에서도 남쪽인 이천시 울면에 위치한 하늘빛농원은 경기도 내륙지방 최초로 굴과 하라봉 재배에 성공한 농가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굴과 하라봉 수확 체험으로 관내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겨울 체험을 오는 곳이다.

바깥에서 볼 때는 추수가 끝난 황량한 논 가운데 비닐하우스가 덩그러니 보일 뿐이지만, 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푸릇한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노란색 굴과 하라봉이 기분까지 즐겁게 하는 곳이다.

△ 가족도, 단체도 사전예약하면 굴따기 체험가능

보통 과일이나 농산물 수확체험은 단체가 아니고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편이지만, 하늘빛농원의 굴따기 체험은 사전에 예약한다면 가족이끼리 방문해도 체험이 가능하다. 굴도 직접 따고,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맛있는 굴도 먹고, 예쁜 굴나무를 배경으로 인생샷도 즐길 수 있다.

△ 만들기 체험으로 완성하는 이천 울면 여행

하늘빛농원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마실이라는 공예체험장이 있다. 이곳의 체험프로그램은 크게 공예 체험·쿠킹클래스·원예클래스 3가지 분야다.

이천/남시현 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 최수진 / 부사장 : 김영근 / 편집국장 : 정채두

서울본사 : (우 08639)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동) 시흥유통상가 12동 106호

경기본사 : (우 14220) 경기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 (광명동) 2층 201호

대표전화 : 1899-9659 2009년 4월 20일 창간

편 집 국 : 02-2612-2959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 경기, 가50079

이 메 일 : ekwk44@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sujin004344@hanmail.net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9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의회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분권으로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독도, 일본주장 왜 허위인가? II

“독도, 일제강점과 관계없다?”

독도가 일본 침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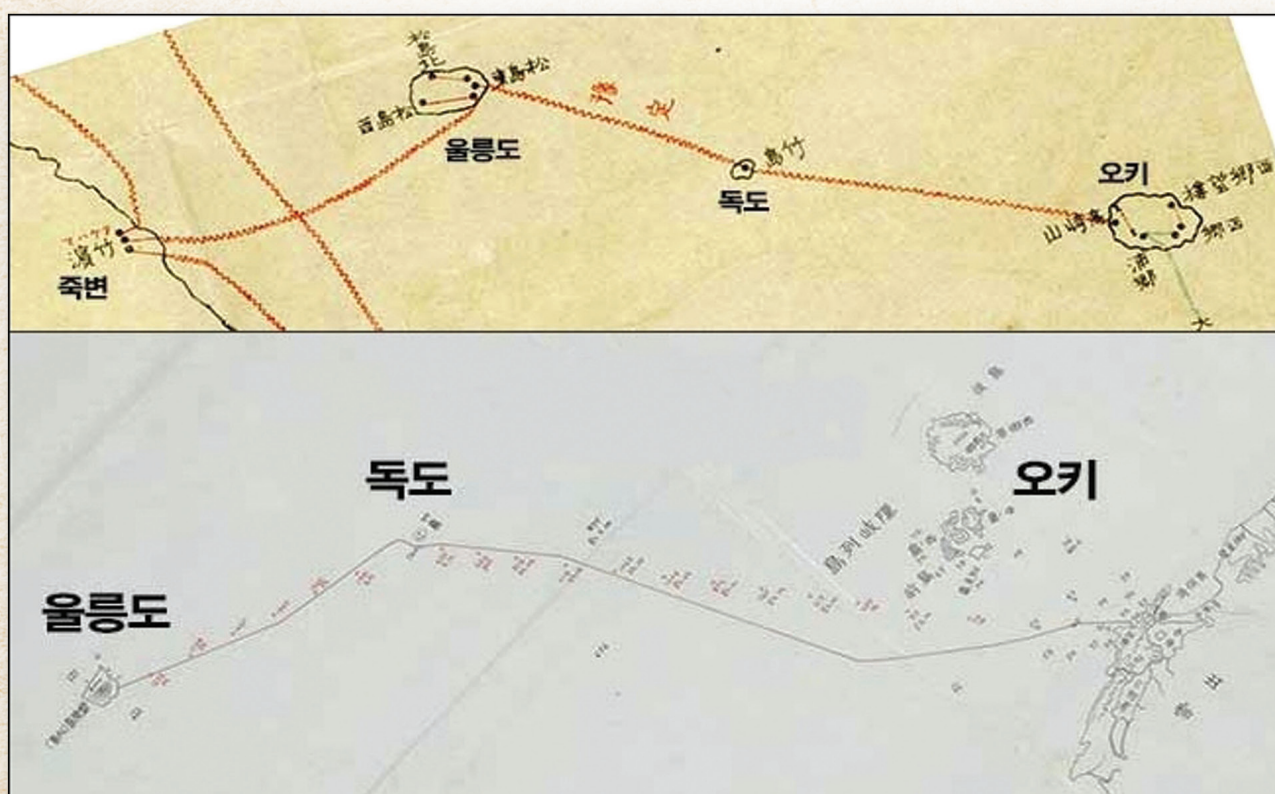


첫 희생물이 된 경위는 이렇다



독도 가설 망루건설물 배치도

※망루는 현 독도경비대 막사, 감시소는 현 독도 등대자리



해저전선 부설도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로 한다. 일본 해군은 1904년 9월, 1905년 1월과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군함을 보내 독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러시아 군함이 독도 부근에 표박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일본 해군은 7월 25일에 망루 공사를 시작해 8월 19일부터 망루를 가동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독도-오키(隱岐)를 잇는 해저 통신케이블 부설공사를 추진했으며, 독도에는 관측병 등 4명의 군인이 체류했다. 시마네현은 망루 설치 과정에서 강치잡이업자 나카이 요사부로를 앞세워 독도를 무단 편입했다. 망루요원은 러일전쟁 종전 후 10월 24일 철수했으며, 해저케이블은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운용되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이미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기(隨機)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